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4호 【루계 제25958호】 주체107(2018)년 3월 25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학생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학생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 95돐을 맞으며 전국의 모범적인 학생소년들로 답사행군대를 무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답사행군대원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16일 력사의 땅 포평을 출발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열어주신 답사행군로정을 따라 24일 송림에 도착한 학생소년들은 사랑의 선물을 실은 비행기를 커다란 기쁨과 감격속에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자강도당위원회 위원장 김재룡동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 답사행군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리일환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답사행군대원들이 받아안은 은정어린 선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영광찬란한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우며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들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원수님의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학생소년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배움의 천리길로정에 있는 혁명사적지참관과 위대한 대원수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학습,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 등에 적극 참가하여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답사행군에 참가한 모든 학생소년들이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에 건강한 몸으로 전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영광의 보고를 올림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한없이 따사로운 친어버이의 정으로 사회주의조국의 밝은 미래와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정이 모임장소에 뜨겁게 굽이쳤다.

답사행군대원들은 행군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지니셨던 혁명의 높은 뜻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가슴마다에 깊이 새기며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들고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태양만을 따르는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자라날 일념안고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행군길을 이어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셔갈 일념안고 대성구역 려명동 34인민반 리진식은 오랜 기간 만수대언덕에 충정의 자욱을 새겨가며 조선혁명박물관을 꾸리는데 절실히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함으로써 반일애국렬사유가족의 본분을 다해가고있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체신성 산하단위 로동자 황옥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순결한 향심을 바치였으며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을 빛내이는 사업에도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 번역원 오향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설비들과 물자들을 여러차례나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정홍상점 로동자 선우성도 주체조선의 만년국보를 빛내이는 사업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만경대경흥식료공장 부원 리주심, 로동자 황은경은 백두의 혈통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길에 태양조선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조선혁명박물관을 훌륭히 꾸리는데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우리 당의 혁명력사와 령도업적을 불멸이 빛내여갈 일념밑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번역원 김명혁,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리혜란도 깨끗한 충정의 한마음으로 공사를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이는 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자

산소열법용광로조업이래 주체철생산 2.5배로 장성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온 나라 천만군민을 격동시키는 혁신의 새 소식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철에 일떠선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증산열풍이 세차게 일어나 날에날마다 주체철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산소열법용광로조업이래 하루 주체철생산량을 3월에 들어와 련이어 돌파하고있다. 지난 1일부터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이들은 12일에는 근 2배로, 13일에는 그 기록을 또다시 돌파하여 2.5배로 끌어올리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 성과는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주체철생산의 동음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갈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김철로동계급의 애국충정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되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생산공정이 꾸려졌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새로운 생산기지들이 일떠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한층 강화되였습니다.》

철의 도시 김철이 용을 쓰며 일떠서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원료, 연료에 의거한 우리 식 철강재생산기지로 전변되여가고있으며 그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높이 발휘되고있다.

지나온 혁명의 년대기마다 강철로 당과 수령을 절사옹위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될 자신만만한 신념과 배짱을 안고 증산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앙양된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는 한편 전투장마다에 구호와 표어를 게시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당, 행정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몸을 묶 잠그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대오의 기수가 되여 로동자, 기술자들을 증산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당의 부름따라 오직 제힘을 믿고 떨쳐나선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정신력은 끊임없는 기적을 낳고있다.

특히 주체철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산소열법용광로 용해공들은 전날 기록한 높은 쇠물생산실적을 그 다음날에 가서는 또다시 돌파하는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로운영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부단히 사색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완강히 실천해나갔다. 용광로의 용해시간을 단축하고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계속 탐구하여 실천에 속속 도입하였다. 종전에 비해 무연탄소비량을 낮추면서도 주체철생산을 장성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측정장치와 분석장치들을 적극 받아들여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산소열법용광로를 처음 운영해보는것으로 하여 철생산량을 계속 늘이면서 그 조작방법과 원리를 파악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계통별, 부분별의 기술규정과 조작법을 하나하나 정신해나갔으며 교대를 마치고도 용광로곁을 떠나지 않고 고급기능공들과 신입공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부닥칠수 있는 정황들에 대한 극복방도들을 토의하였다. 그로 하여 단김을 화화 내뿜던 용광로에 긴박한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에는 째인 협동과 날랜 솜씨로 보수전투를 짧은 시간내에 와닥닥 해제낄수 있었으며 주체철생산의 동음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갔다.

이 나날 이곳 로동계급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한걸음의 양보나 동요는 곧 전화의 나날 고지를 내주는것과 같다는 비상한 자각을 뼈에 새기고 주체철증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용광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려는 이런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기질, 본때에 의해 차지당 쇠물생산실적은 종전보다 2배이상으로 뛰여오르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산소분리기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중앙을 절사옹위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자기들도 서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뼈에, 혈에 새겨안고 산소분리기의 우렁찬 동음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주체철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질좋은 산소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이곳 일군들은 직종별, 기능별기술학습을 잘 조직하여 빠른 시일내에 모든 로동자들을 한몫 단단히 하였다.

제판부문과 원료보장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철강재생산의 성과여부가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각오를 안고 제판품생산과 원료보장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후방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들끓는 전투현장에 달려나와 주체철생산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 날에날마다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인 성과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언제나 힘과 용기를 주시고 김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비약의 봉마에 태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그 사랑, 그 믿음에 자랑찬 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김철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전국적으로 수만정보의 논밭흙깔이 진행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불같은 열의안고 과감히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봄철영농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6만 9천여정보의 논밭에 흙깔이를 진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더 높은 이 실적은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가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불타는 열정과 헌신이 낳은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지력을 높이는데서 찾고 흙깔이전투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내밀었다.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몫을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고 분발하여 흙깔이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숙천군에서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비상한 각오안고 흙깔이전투 목표를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개천-태성호물길, 평남관개물길가시기와 각 농장들의 양어장바닥파기를 전투적으로 진행하여 수십만t의 토량을 2 700여정보의 논밭에 깔아주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증산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90여개소에서의 관개수로공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나온 20여만t의 토량을 1 500여정보의 논밭에 실어내였다. 평성시, 평원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흙깔이전투가 통이 크게 진행되여 도적으로 9 800여정보의 논밭흙깔이 실적이 기록되였다.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뜻대로 올해농사를 더 잘 지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 불같은 열정안고 힘찬 투쟁을 벌렸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곽산군일군들은 지난 기간의 농사경험과 필지별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흙깔이목표를 면밀하게 세웠다. 또한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흙을 포전들에 실어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과감하게 밀고나갔다. 염주, 동림, 선천군들에서도 높이 세운 흙깔이전투목표를 제기일에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짧은 기간에 수천정보의 논밭에 흙깔이를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하였다.

안악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거름진 땅에 알찬 이삭이 주렁진다는것을 명심하고 흙깔이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배천, 신천, 재령군의 농업근로자들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을 지켜섰다는 드높은 자각과 열정을 안고 흙깔이전투를 통이 크게 벌려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였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흙깔이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여 뜻깊은 올해 다수확성과를 안아올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본사기자 장은영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

전국각지에서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높이 경제강국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금속공장들에 대한 지원열의를 더욱 높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8일현재 수백개에 달하는 단위들에서 1.4분기 과철모으기계획을 완수하였으며 35개 단위가 상반년계획을, 13개 단위가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였다.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는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열의는 강철로 우리 당을 억세게 받들어나갈 일념안고 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강철전사들을 고무추동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각 도, 시, 군의 일군들은 과철모으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자강도일군들은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자주 나가 강철전선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누구나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참가하도록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결과 강철전선지원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도안의 13개 단위가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앞선 단위들의 뒤를 이어 시, 군, 단위별로 과철모으기사업이 더욱 활발히 벌어져 위원군, 장강군의 10개 단위가 상반년계획을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자강도에서 전국적으로 년간계획,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단위가 제일 많이 배출되였다.

평안북도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정주시에서만도 2개 단위가 년간계획을 완수하고 련이어 9개 단위가 상반년계획을 완수하여 도적으로 제일 앞선 자리를 차지하였다.

함경남도와 평양시에서도 상반년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수한 단위들이 련속 나오고있다.

함경남도에서는 함흥목재가공공장, 함흥제사공장을 비롯하여 11개 단위가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대렬에 들어섰다.

강철전선지원사업에서 언제나 모범을 보이고있는 평양시에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한 4개 단위가 상반년계획을 남먼저 수행하였다.

강철전선지원사업에 높은 애국적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의하여 굴지의 야금기지들에서는 철강재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상반년, 1.4분기계획완수자 련이어 배출

개천철도국에서

개천철도국아래 기관차대들의 수송전사들이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드높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철도국적으로 지난 21일현재 상반년계획완수자 십여명, 1.4분기계획완수자 백수십명이 배출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철도국의 일군들은 물동수송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각지 기관차대 수송전사들을 증송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수리정비에 필요한 자재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기관차대들에 내려간 철도국의 일군들은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물수송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국아래 기관차대들의 수송전사들은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지력경쟁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날에날마다 높은 수송실적을 기록하고있다.

7명의 상반년계획완수자와 62명의 1.4분기계획완수자를 배출한 정주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이 증송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설비관리능력과 운전기술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수송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히 《붉은기》 6039호와 《붉은기》5034호 책임기관사 리영준, 량현철동무들은 상반년계획과 1.4분기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증송투쟁의 불길은 신의주기관차대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내연218호 책임기관사 장승범, 내연221호 책임기관사 변영길동무를 비롯한 상반년계획과 1.4분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수십명의 수송전사들은 수리공구와 예비부속품들을 넉넉히 마련해놓고 운행중 자검자수를 실속있게 하여 기관차의 실동률을 훨씬 높이고있다.

이들은 사령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침목보상대를 수시로 알아보는 한편 철길의 기술상태에 따르는 앞선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여 종요물동수송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개천기관차대와 희천기관차대의 계획완수자들도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창조의 동음높은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물동수송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개천철도국아래 기관차대들의 수송전사들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열의로 두줄기 궤도우에 높이 울리는 증송의 기적소리는 지금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증산돌격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투철한 혁명신념으로 승리떨치리

혁명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혁명의식을 지녀야 한다.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혁명적립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혁명의식은 혁명가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

진정하고 투철한 혁명의식을 지녀야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고 값높은 삶을 꽃피울수 있다.

혁명의 1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이 무슨 힘으로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었는가.

우리 인민이 어떻게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전설속의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려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하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졌지만 우리 조국에서만은 사회주의의 붉은기가 더욱 세차게 휘날릴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인민이 지닌 투철한 혁명의식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불변의 신념, 죽을지언정 혁명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완강한 의지, 어떤 시련과 난관도 다 이겨내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겠다는 결사의 각오, 바로 그러한 혁명의식을 간직하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의 모진 광풍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곧바로, 곧바로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만사를 해결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혁명은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오면서도 자기의 기발에 승리만을 아로새길수 있었습니다. 》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걸어온 길 그 얼마인가.

장장 수십성상 조선혁명이 걸어온 그 길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은 얼마였고 죽음도 각오하고 헤쳐온 사선의 고비는 또 얼마였던가.

절세의 위인들을 따라 싸우는 길에서는 기쁨도 영광이고 시련도 영광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고난의 천만산악을 넘고 헤쳐오는 나날 우리 인민이 심체험으로 새겨안은 삶과 투쟁의 진리이다.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인 청년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도 집에서 세간살이나 하면 편안한줄을 알았고 죽을 념려가 없다는것도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때문에 등짐을 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느며 밤에는 나무밑에서 자고 먹을것이 없어 곤난을 겪으면서도 총을 들고 매일같이 적과 힘겨운 싸움을 하여왔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아서 모든 조선사람들이 다 잘살수 있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돈 한닢 받지 않고 자진하여 혁명에 참가하였으며 모든 곤난을 이겨내면서 15년을 하루같이 산에서 싸워왔습니다. …

항일혁명의 성스러운 력사가 보여주듯이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을 시작할 때 유격대원은 불과 100여명이였다. 무장도 일제에게서 빼앗은것이였다.

일제의 총칼이 숲을 이루고 참기 어려운 굶주림과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백두의 혹한속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라고 웨치며 목숨바쳐 싸울수 있은것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간직하였기때문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에게 들려주신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항일유격대의 한 대원이 용서받을수 없는 과오를 범하여 부대로 호송되게 되였다. 그런데 그를 호송하던 대원들이 적들과 조우하게 되였다.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전투과정에 그를 호송하던 대원들이 희생되였다. 과오를 범하여 호송되던 대원은 그 기회에 적의 편으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민가로 내려갈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한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적을 족치고 자기를 처벌할 부대로 돌아왔다. …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그 대원은 죽어도 혁명군의 대오에서 죽으면 죽었지 적의 편으로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신념이 확고했기때문에 부대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시였다.

동지들과 혁명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을 하겠다는 진정한 혁명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이였다.

혁명년한이 오래고 지식수준이 높다고 혁명의식도 자연 높아지는것이 결코 아니다.

돌이켜보면 간고한 투쟁속에서 더 순결해지고 강해진 우리의 혁명대오이며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 힘차게 전진한 조선혁명이다.

전인미답의 간고하고 준엄한 투쟁로정을 새겨온 우리 혁명이 실증한것처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완강한 기질, 반혁명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을 체질화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한다. 설사 그 길에 지뢰밭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여오신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에서 력사는 가장 숭고한 혁명관의 계승을 보았다.

이제는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 나붓기는 붉은 당기발을 바라보시며 엄숙히 선언하실 때 그이의 심장에 세차게 고동친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실 굳센 의지였다.

주체의 붉은 당기를 높이 날리며 오직 승리만을 안아오실 위대한 장군님의 불굴의 의지속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선포되였고 속도전의 시대가 펼쳐졌으며 평양번영기와 같은 세기적변혁들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이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높이는것을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투철한 혁명의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사면팔방에서 달려들고 세계가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을 우려하던 그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서 터져나온 이런 신념의 웨침은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 백배천배로 굳게 다진 드높은 혁명의식의 분출이였다.

령도자를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각오와 의지, 불같은 혁명열이 바로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시대를 펼치였고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과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과시할수 있게 하였다.

광활한 미래는 위대한 노력을 요구하며 위대한 노력은 투철한 혁명의식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장군님의 령전에서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다는것을 맹세하였다고 하시면서 강철의 의지로 혁명의 길을 헤치시고 바로 그 길에서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가장 투철하고 진정한 그이의 혁명의식은 이 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며 우리 혁명의 백승의 보검이다.

그 어떤 원쑤도, 그 어떤 시련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뜻을 신념으로 체질화한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숭고한 혁명의식은 영웅인민을 낳고 혁명을 승승장구하게 한다.

높은 혁명의식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위력하며 최후의 승리는 혁명의식을 체질화한 인민의 것이다.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락관에 넘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따라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억세게 걸어가는 우리 인민앞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혁명의 만년재보

간백산밀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우리앞에 어려운 혁명과업이 나설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의 하나인 간백산밀영은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육성기지,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집결처였다.

간백산밀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이다.

간백산밀영은 백두산과 소백산사이에 솟아있는 간백산기슭의 수림속 깊은 분지에 자리잡고있다.

간백산밀영은 주체27(1938)년 여름에 건설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7(1938)년 9월 하순 간백산밀영에서 북선반일인민유격대조직을 위한 준비사업을 료해하시고 전인민적항쟁을 조직지도할수 있는 핵심육성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주체28(1939)년 5월 또다시 밀영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의 회의를 여시고 국내비밀근거지를 백두산동북부일대에로 확대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앞으로 있게 될 무산지구진공작전준비를 더욱 완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9(1940)년 9월에는 이곳에서 백두산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책임자들의 회의를 여시고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된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소부대, 소조들의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날의 회의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도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0(1941)년 6월에 또다시 이 밀영에 오시여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주체적립장을 고수하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방향에서 투쟁을 벌려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밖에도 간백산밀영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2(1943)년 봄 백두산밀영으로 나오실 때 들리신 사적과 주체34(1945)년 6월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하달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 및 병사대회를 소집하신 사적들도 깃들어있다.

간백산밀영에서 육성된 수많은 핵심들은 국내 전국각지에 파견되여 전민항쟁을 위한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렸으며 조국해방작전시기에는 이곳에 집결되여 대기하고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최후공격작전에 참가하였다.

간백산밀영은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밀영들과 함께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의 기간에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는데서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혁명전적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9(1990)년 8월 간백산밀영을 돌아보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으며 혁명유적, 유물들을 고증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간백산밀영에 대하여 회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천연화강석에 정중히 새겨 밀영에 건립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가슴깊이 새겨간다. —장산혁명사적지에서— 김광림 찍음

명천군 마산리당조직에서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

명천군 마산리당조직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위대성교양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독보와 해설모임, 강연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특히 일군들부터가 위대성학습을 실속있게 한 다음 대중속에 들어가 해설자, 선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다.

얼마전 현장에서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던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의 운명을 수호하시며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이날의 해설사업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높은 알곡증산으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할 결의에 충만되여 당면한 영농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로동통신원 김성철

값높은 평가속에 어린 숭고한 뜻

자기가 주인이 되여 자기 일터,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 맛이 나게 손색이 없이 꾸려나가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향토애와 조국애를 지니고 자기 마을과 거리, 공장과 학교, 자기 군과 도를 알뜰하고 깨끗하게 꾸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어느해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 만포시를 찾으시였다.

2월의 마지막날이라고 하지만 북방의 날씨는 여전히 맵짰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시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도시건설과 도시경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만포시는 공장들뿐아니라 거리와 마을, 도로가 다 국경도시답게 하나같이 정갈하고 규모가 있었으며 편의봉사시설들의 위치도 실용성있게 잘 배치되여있었다.

길가에 은행나무와 수삼나무도 많이 심고 가로등도 알맞춤하게 설치해놓아 거리의 모습은 이채로왔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 일터,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알뜰하게 꾸려놓고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락관적으로 일하고있는 만포시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사상정신상태와 일본새를 헤아려보신 우리 장군님의 기쁨은 참으로 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포시가 최고이고 제일이라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매우 좋고 생산과 인민봉사, 도시건설과 도시경영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라고, 다 멋있다고 하시면서 이런것을 보고 사회주의선경이라고 한다고 만족하신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자강도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계속되였다.

만포시일군들이 일을 잘한다는데 대하여서는 여러번 보고를 받아 알고있었는데 오늘 와보니 진짜 일욕심이 많고 깐깐하고 손탁이 세다는것이 알린다고, 확실히 자강도사람들의 일본새는 다른 지방의 그 어느 단위 일군들과도 대비가 안되게 섬세하며 모든 일을 정성을 기울여 한다는것이 눈에 뜨이게 알린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거듭되는 위대한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치하에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 어찌 만포시의 전변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는가. 살아있는것자체가 기적이라고 할수 있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강도를 찾고찾으시여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며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속에 만포시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될수 있었다.

그이께서 수놓으신 만단사연들을 뜨겁게 돌이켜보는 일군들속에서 만포시의 책임일군이 한걸음 나서며 위대한 장군님께 앞으로 일을 더 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제끼는데서 만포시가 전국의 앞장에 서겠다고 결의를 다지였다.

그를 미더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오가 좋다고, 그 배심이 마음에 든다고, 모든 일에서 남보다 앞서나가겠다는 야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에게 얼마든지 전국의 앞장에 설수 있다고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포시의 전경을 다시금 둘러보시며 자강도에서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 나래치고 벌써 사회주의강국의 휘황찬란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자강도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여나가니 자강도에 오면 정말 기쁘고 만시름이 다 풀리는것 같습니다. 오면 떠나고싶지 않은 곳이 자강도입니다.

만시름이 다 풀리는 곳!

오면 떠나고싶지 않은 곳!

이것은 자강도사람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더없는 믿음이였고 사랑이였다.

시련과 난관을 헤쳐가며 자기의 손으로 거리와 마을, 일터마다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만포시사람들의 그 마음이 너무도 소중하시여, 온 나라가 이렇게 살며 일한다면 사회주의강국의 려명은 앞당겨질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였다.

본사기자 채히성

체육강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대강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세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3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체104(2015)년 3월 25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체육강국건설의 앞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다. 로작에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주체의 체육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집대성되여있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체육강국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체육분야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높이 떨쳐나갈수 있는 근본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빠른 시일안에 나라의 체육기술을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체육강국건설은 우리 나라를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체육으로 강대해지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키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나가는데서 체육강국건설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체육강국건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전선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당과 국가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체육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체육부문의 일군들과 체육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온 지난 3년간의 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체육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다는 신념을 뼈속깊이 새기게 되였다.

로작은 빠른 시일안에 나라의 전문체육기술을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울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패권을 쥐고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는것은 체육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이다. 나라의 전문체육기술을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워야 그 나라의 체육발전수준이 세계적수준에 있다고 말할수 있으며 그러한 나라만이 체육강국이라고 당당하게 자부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체육인들을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우리 식의 우월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로작의 사상리론들은 선수, 감독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투쟁기풍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체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지난 3년간 체육부문에서는 체육인들을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전위투사들로 키우기 위한 일대 사상전이 벌어지고 선수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해나가도록 하는데 사상공세의 화력이 집중되였다. 이와 함께 실전훈련의 용광로속에서 선수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육체기술, 전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승산종목을 주타격방향으로 하여 발전시키면서 다른 종목들을 따라세워 많은 체육종목에서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나아가서 세계패권을 쥘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투쟁하는 과정에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의 미더운 체육선수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해에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와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다 우승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3년간 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치였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60여차의 국제경기들에서 근 70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180여개의 메달을 쟁취한것은 우리 당이 심어준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세계출판보도물과 체육계인사들은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발휘되는 우리 나라 선수들의 높은 정신력과 강한 집단력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라고 광범히 소개선전하였다.

최근년간 각 도들에 체육대학이 세워지고 유능한 체육선수후비육성과 체육일군양성사업이 실력본위의 원칙에서 더욱 개선강화되고있으며 해마다 훈련경기와 검열경기, 도전경기, 패왕경기가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속에 체육종목별 공화국 새 기록, 새 기준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후기선수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현실은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제일무기로 틀어쥐고 맹렬한 실전훈련열풍을 일으켜 단수높고 변화무쌍한 경기전법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련마해나갈 때 체육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작은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는데서 새로운 봉화를 지펴올린 불멸의 대강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체육강국은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여 그들자신이 직접 체육활동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나라이며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나라라는데 그 우월성과 참모습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학교체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학교체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학생들을 건장한 체력을 지닌 주체혁명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재능있는 종목별체육선수후비를 수많이 키워내여 나라의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라나는 청소년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며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운영을 활발히 벌린 결과 학교체육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해마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주요명절들과 기념일, 체육절과 체육의 날을 계기로 도, 시, 군대항경기를 비롯한 부문별, 단위별, 조직별대중체육경기들이 의의있게 조직진행되고있다. 또한 모범체육군, 모범체육단위칭호쟁취운동과 체육월간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최근년간 우리는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거세찬 체육열풍속에 언제나 일터가 흥성거리고 사람들이 혁명적랑만과 정열에 넘쳐 생활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의 정당성을 가슴깊이 절감하고있다.

로작은 또한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체육부문의 물질적토대를 비상히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다.

체육강국건설에서 승리의 열쇠는 체육을 과학화하는데 있다. 세계적으로 체육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체육과학기술경쟁에서 앞서면 승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패자가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려는 우리의 미더운 체육선수들의 강한 정신력에 높은 체육과학기술이 안받침되면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체육부문에서는 지난 시기 체육의 과학화사업에 낯을 적게 돌리거나 소홀히 여기던 그릇된 현상을 극복하고 체육사업의 모든 분야를 현대체육과학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체육교수훈련의 전과정을 과학화하고 체육선수들이 훈련과 경기과정에 리용하는 종목별기자재들과 체육과학측정기재들의 경량화, 지능화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체육과학연구부문에서 당에서 중시하는 종목들의 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면서 생리학, 생화학과 같은 기초과학과 선수들의 몸상태조성, 육체적능력향상을 위한 연구를 강화한 결과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해마다 큰 규모로 진행되는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수천건의 전시품들이 출품되고있으며 여기서 우수하게 평가된 과학기술성과들이 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들을 비롯한 교수훈련단위들과 해당 단위들에 도입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체육정보부문 사업에서도 종목별체육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와 관련한 자료를 제때에 수집, 보급함으로써 우리 체육선수들이 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에서 질좋은 체육기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여러가지 영양식품들이 생산되여 체육선수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다. 지난 3년간 체육관, 경기관, 옥체훈련장, 체육공원 등 수천개의 체육시설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현대적으로 개건되여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물질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고 가까운 앞날에 체육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이다.

우리 체육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체육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여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고 주체의 체육강국건설의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나갈것이다.

체육성 제1부상 김정수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나가는데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실력전과 사업실적

중화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년간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당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높은 실적을 거두고있는 중화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높은 실력을 지닌것만큼 높은 사업권위를 지니고 농사에 대한 지도를 잘할수 있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군당위원회들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곳 군당위원회가 실력전의 된바람으로 일군들의 사업권위를 어떻게 높이였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키는데서 어떻게 제구실을 다하게 하였는가를 살펴보자.

❊ ❊

군당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습득하는 사업, 실력향상을 위한 사업을 소홀히 대하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아주기 위한 투쟁을 일관성있게 강도높이 벌려왔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영농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위해 현지에 나갈 때마다 되새겨보군 하는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군당위원회에서 영농지도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총화를 진행하던 때의 일이다.

조정성군당위원장은 몇두 한 협동농장을 담당하고 나갔던 일군에게 관봉협동농장 제1작업반 1분조 포전의 모내기정형에 대해 물었다.

선진적인 영농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대하는 그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엿보고 넌지시 던진 물음이였다. 담당농장으로 그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길녘에 그 포전이 있었던것이다.

거기에 새로운 영농방법이 도입된것을 알리 없었던 일군은 제나름대로의 견해를 말하였다.

그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였다. 하기에 군당책임일군은 일군에게 그 포전이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인 포전이라는것을 알려주고나서 단단히 일렀다.

실력전을 벌리는 사업을 그렇게 차요시하면 걷은 밀짱해도 간판밖에 남지 않게 된다.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하겠다.

그 일군만이 충격을 받은것이 아니였다. 농사물계가 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적지도를 하다나니 일자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있던 일군들도 각성하게 되였다.

실력이 없으면 사업권위를 세울수 없다. 해박한 영농과학기술지식을 가져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을 비롯하여 농사를 실무적으로 책임진 행정일군들과 언어가 통할수 있으며 물샐틈없는 작전과 지휘도 할수 있다. 실력이자 사업권위이며 사업실적이다.

군당책임일군은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방법을 습득하는데서 제1번수가 되였다. 그는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연구사를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적극적인 련계밑에 영농기술과 방법을 터득해나갔다. 플류러에 실지 현실에 도입한 대비적인 자료들도 입력해놓고 영농지도사업에 능숙히 활용하였다. 농사와 관련한 일군들의 모임을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영농기술과 방법에 대한 격식없는 론의를 펼치고 자연스럽게 학습담화로 승화시켰다. 이를 계기로 일군들속에서 농업과학기술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었다. 그들에게 군당책임일군자신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기도 하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책임일군들이 알기 쉽게 해우쳐주도록 하기도 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협동농장들에 지도사업을 나갈 때에는 물론이고 농장들을 분담받은 영농지도성원들이 현지에 나갈 때에도 항일유격대식배낭들에 당면한 영농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술자료들을 넣어가지고 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건도 잘 보장해주었다. 지난해 일군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습을 진행할 때에는 직접 그들이 우월한 농사방법을 도입한 군안의 한 농장포전에 나가 실물로 보고 느끼도록 강습일정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다음으로 실력전의 불길속에서 사업권위를 높여나가는 일군들의 긍정적 소행을 찾아내여 적극 떠밀어주기 위한 사업도 박력있게 전개하였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에서 만족을 모르고 계속 전진하는 관봉협동농장의 초급일군들이 벼강화재배방법을 받아들이던 때의 일이였다.

남보다 빨리 전진하려는 열망을 앞세우면서 대담하게 일판을 벌리다나니 당면한 영농사업추진에서 로력이 긴장해지게 되였다.

농장의 초급일군들이 안타까와하고있던 그때 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을 발동하여 그들의 영농사업을 기동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한편 기회를 마련하여 벼강화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일선 정양시의 한 단위에 대한 보여주기사업도 조직해주었다. 또한 이곳 농장의 초급일군들을 내세우면서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벼강화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 사업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였다.

새 영농방법의 도입을 위해 김은철부위원장을 비롯한 군당일군들이 남모르게 기울인 노력은 실로 컸다.

벼강화재배방법을 도입한 결과는 영농실천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지난해 이 농장에서는 벼강화재배방법의 도입과 관련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까지 진행되였다.

강냉이잎자르기를 통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육상태를 좋게 해나가도록 한 농장일군을 먼저 계발시키고 그의 모범을 일반화하여 모든 농장일군들을 발동시킨 사실, 록화편집물을 통하여 당의 요구대로 철저히 과학농사를 짓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태현이 늘어나도록 추동한 사실, 믿음과 사랑으로 한 협동농장의 기술일군을 뜨겁게 손잡아 이끌어준 사실…

군당위원회가 품을 들인 사실들은 이밖에도 많다.

땅도 그 땅, 사람도 그 사람이였지만 군의 농사에서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다. 정보당 수확고가 훨씬 뛰여올라 알곡생산계획을 미달하던 군으로부터 알곡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군으로 되였다.

교훈은 무엇인가.

당일군들의 높은 실력이자 곧 사업권위이며 높은 실적의 담보로 된다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정 수

아는것만큼 지도할수 있다

벽성군 원평리당위원회 사업에서

농촌당일군들은 농업과학기술에 정통한 실력가가 되여야 한다. 그래야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키울수 있고 당의 농업정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갈수 있다.

벽성군 원정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체험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사업을 하건 경제사업을 하건 다 현대과학을 알아야 하며 박식가가 되여야 합니다.》

농장의 과학농사정형을 알아보느라면 자연히 홍순철리당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만큼 그는 농사에 밝은 당일군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것은 아니였다.

퍽 오래전 여름날의 일이다.

제2작업반 포전을 돌아보던 리당위원장은 걸음을 멈추었다. 벼잎들의 색이 다른 포전들과 달랐던것이다. 벼칠전 그 포전을 지나면서 농장원들에게 비료를 듬뿍 주라고 강조했던 일이 생각났다.

저녁총화모임때 이 문제를 두고 기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는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많은 비료를 친데 원인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얼굴이 뜨거웠다. 모르고서는 대오의 기관차는커녕 오히려 장애물로 된다는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다.

그후 그는 새로운 각오를 안고 달라붙었다. 신문, 잡지들에 실리는 농업과학기술자료들을 부단히 연구하고 작업반들에 나가 농사경험이 많은 농장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도 나누었다. 다수확포전과 수확고가 낮은 포전을 대비해보면서 품종배치와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깊이 파악하였다.

그것은 응당한 귀결을 낳았다.

몇해전 리당위원장은 가물이 심한 조건에서도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영양상태를 좋게 하고 비료손실을 없앨수 있도록 잎덧비료주기를 적극 받아들일것을 발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십대의 분무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그런가하면 무수확지나 다름없던 수십정보의 땅에 작물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여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하였다.

두벌농사에서 겹재배방법을 받아들이게 된데도 리당위원장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앞그루로 밀, 보리를 심고 뒤그루로 강냉이를 심었는데 강냉이의 생육기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여 천알무게가 떨어졌다. 앞뒤그루에서 다같이 응근소출을 내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던 리당위원장은 겹재배방법을 전면적에 받아들일것을 발기하였다. 겹재배방법으로 두벌농사를 지은 결과 전해에 비하여 수백t의 강냉이를 증수하게 되였다.

리당위원장이 모든 영농공정들을 환히 꿰들고있으니 농사작전과 지도에서도 주선을 확고히 세울수 있게 되였다.

지난 2월말이였다.

당시 농장앞에는 많은 과제가 나섰다. 자급비료반출, 봄보리씨뿌리기, 벼모판씨뿌리기준비, 물길가시기, 보막이공사…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농사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일군들이 로력배치문제를 두고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을 때 리당위원장은 말하였다. 영농시기로 볼 때 지금 가장 급한것은 봄보리씨뿌리기이다.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자. …

이렇게 되여 봄보리씨뿌리기를 적기에 끝냄으로써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요한 문제점을 시사하여준다. 농촌당일군에게 있어서 농업과학기술을 소유하는것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격문제이다. 아는것만큼 지도할수 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기술일군들을 적극 떠밀어줄 때

정평군 호남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정평군 호남협동농장은 기술일군들의 역할이 높고 과학농사에서 앞선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잊지 않고 나라의 부강번영에 과학기술로 이바지하도록 믿어주고 내세워주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농사와 관련한 기술일군들의 혁신적인 발기를 적극 지지하고 끝까지 밀어주는것, 이것이 리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몇해전 기사장 조기철동무가 단지모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논벼 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인 태천군의 경험을 받아들일 의향을 내비쳤을 때였다.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첫해이니 로력조건 등을 고려하여 30%면적에 받아들이려 한다는 기사장에게 리당일군은 말하였다. 논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선진영농방법이라는것이 증명된 이상 주저할것이 있는가. 힘들더라도 전면적에 받아들이자.

아무리 좋은 농사방법이라고 하여도 대중이 인식하고 적극 달라붙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수 없다. 리당위원회는 단지모에 의한 논벼재배방법의 우월성을 농장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앞세웠다. 새로운 논벼재배기술이 수록된 다매체편집물을 농장원들에게 보여주어 그 원리와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인식시키도록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었다.

이에 기초하여 기술일군들이 신심과 주견을 가지고 단지모재배를 내밀도록 그들을 만나 힘을 주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그해에 농장에서는 논벼 정보당 2t이나 증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깊은층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하여 논벼 정보당 수확고를 급속히 올릴수 있은것도 리당위원회가 기술일군들의 과학농사작전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떠밀어준 결과이다.

지난해 조철비료주기를 앞두고 기사장이 유기질복합알비료 성형기개조문제를 제기하였다.

기계개조에 필요한 자재문제를 자진하여 맡은 리당위원장은 홍남지구에 가서 철판을 해결해온데 그치지 않았다.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적극 발동시켜 짧은 기간에 기계개조를 끝낼수 있게 하였다.

기사장이 깊은층비료주기와 관련한 기술전습회조직안을 내놓았을 때였다. 작업반장, 기술원, 분조장들만 참가하게 되여있는 조직안을 보고난 김철남리당위원장이 이런 안을 제기하였다. 기술전습회에 당세포위원장들과 농근맹초급일군들, 선동원들까지 다 참가시키는것이 어떤가. 참가대상의 폭을 넓히면 그만큼 많은 초급일군들이 기술적으로 무장하고 깊은층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도록 대중을 추동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여 참가자수가 2배이상 늘어난 속에 제2작업반에서 기술전습회가 진행되였고 깊은층비료주기가 기술적요구대로 추진되였다.

리당위원회는 기술일군들이 자기 역할을 다할수 있게 사랑과 정으로 이끌어주었다.

기사장의 안해가 앓을 때였다. 가정형편은 내색함이 없이 오직 농사 하나만을 생각하며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치는 기사장에게 리당일군들은 사심없는 방조를 주어 그가 용기백배하여 과학농사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한 기술일군의 집수리를 맡아해주고 가정방문도 하면서 그가 자기 맡은 일을 잘해나가도록 떠밀어준것을 비롯하여 실례는 많다.

사려깊이 헤아려주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당조직의 사랑과 정은 기술일군들이 과학농사의 선구자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떠밀어주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기술일군들을 대담하게 믿고 적극 떠밀어줄 때, 사랑과 정으로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높여줄 때 과학농사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나고 농업생산에서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이곳 리당위원회는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실효를 거둔 보여주기사업

룡천군 서북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룡천군 서북협동농장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얼마전 우리와 만난 김정철기사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초급당위원회가 당적지도를 잘한데 그 비결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2년전의 일이다.

농장에서는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에 따라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초급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을 발동하여 이른큰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방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들인 품에 비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선진영농방법이 좋다는 해설선전만으로는 만족할수 없다. 현실에서 실지 온을 내고있는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를 진행한다면 더 좋은 결실로 이어질수 있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한 강진명초급당위원장은 시급히 군적으로 앞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련이어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실적을 부단히 높여가고있는 제5작업반에 대한 보여주기사업도 진행하였다.

실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앞선 단위들의 경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많은것을 배웠다.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작업반들마다에서 활발히 진행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열흘에 한번씩 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총화모임에 당초급일군들도 참가시키도록 하였다.

모임에 앞서 초급당위원회가 먼저 진행한 사업이 있다. 보여주기사업이였다. 여기서는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앞장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앞선 단위의 초급일군들에게는 긍지를 주고 뒤떨어진 단위의 초급일군들에게는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는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계기로 되였다.

어은은 컸다.

여러번 반복되는 과정에 작업반초급일군모두가 과학농사에 대한 옳은 관점을 확고히 가지게 되였다. 그들은 농장원들이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작업반들에서 좋은 경험들이 창조되였다.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앞서나가고있는 분조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 사실, 모범적인 농장원들을 내세워 그들의 소행을 따라배우게 한 사실…

이런 속에 농장적으로 과학농사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 농장원들속에서는 선진영농방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려는 열의도 날을 따라 높아졌다.

농장은 2년전에는 물론 지난해에도 논의 전체 면적에 이른큰모에 의한 논벼소식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게 되였다.

총화모임전에 진행되군 한 보여주기사업의 실효는 이렇게 컸다.

본사기자 장 철 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안고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4월 상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4월 상순에 주로 이동성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씨변화가 비교적 심할것이 예견된다. 순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하여 북부내륙과 서해안지역에서 약간 낮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약간 높겠다. 순강수량은 전반적지역에서 평년보다 많겠다.

논벼농사에서는 씨뿌리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씨앗처리와 싹띄우기를 잘하고 벼종자영양피복제를 리용하여 싹돋아나온률을 높여야 한다. 벼종자영양피복제에는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이 포함되여있어 씨앗의 싹트기와 뿌리발육을 촉진하고 벼모가 튼튼히 자라도록 한다.

모종류별씨뿌리기를 잘하여야 한다.

6월 상순에 모내기하는 원그루큰모의 씨뿌리기는 4월 상순까지 끝내야 한다. 씨뿌림량을 정확히 보장하여 이앙될 3대이상 된 튼튼한 벼모를 내도록 하여야 한다.

긴싹큰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이면 일반싹띄우기방법에 비하여 모판기간을 10~14일정도 줄이면서도 큰모를 낼수 있다. 소금물고르기한 벼씨앗을 3%석회수에 2-3일 담그어 소독한 후 물에 2-3회 씻고 싹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싹기르기장의 바닥이 경사지게 하여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랭기가 올라오지 않게 나래와 박막을 편다음 더운 물에 담그어 싹띄운 벼씨앗을 높이가 20-25㎝되게 무저놓아야 한다.

긴싹을 기르는 기간에 씨앗무지의 불기함량을 75%정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씨앗이 마르면 분무기로 물기를 적당히 보충해주며 물을 많이 주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씨앗무지의 온도조절을 잘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단지모, 영양알모, 영양랭상모의 씨뿌림시기를 바로 정하며 씨뿌림량을 기존보다 높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냉이농사에서는 봄철땅다루기를 다그쳐 끝내고 씨앗처리와 씨뿌리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봄밀, 보리농사에서는 싹나온률을 높이고 아지비료주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빈포기메우기를 집적으로 하여 정당 출발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며 아지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감자농사에서는 정지대에서 감자를 적기에 집적으로 심으며 고지대에서 종자싹띄우기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다수확농법으로 호평받는 벼강화재배방법

다수확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최근 많은 농장들에서 벼강화재배방법을 도입하여 높은 소출을 낸 사실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농방법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농업에서 증산의 중요한 예비는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을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벼강화재배는 어린 벼모를 포기당 한대씩 모내기하고 간단물대기, 중경제초, 유기질비료의 리용 등을 통하여 종전의 재배방법에 비하여 로력과 물, 영농자재를 극력 적게 쓰면서도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벼재배방법이다.

벼강화재배방법은 다수확농법으로 호평을 받고있다.

지난해 문천시, 안변군, 락랑구역의 농장들을 비롯한 많은 농장들에서 이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종전보다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평균 1t이상, 최고 3t까지 증수하였다고 한다. 성과를 거둔 단위들에서는 이 재배방법의 공정별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켰다면 다수확을 낼수 있다고 한다.

벼강화재배방법은 실리있는 절약형농법이다.

우선 물절약형농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해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물소비정형을 따져본데 의하면 정보당 0.35정미정도의 물이면 충분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시기와 비교해볼 때 절반밖에 안되는 량이다. 문천시 남창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도 종전보다 적은 량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성과를 보았다.

이 재배방법은 또한 로력절약형농법이다.

문천시의 여러 농장들에서의 농사경험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한 일군은 이 재배방법을 도입하면 모판만들기와 모관리에 드는 로력을 절약할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주요영농공정인 모내는 시기에 적은 로력을 가지고 모내기를 할수 있었다. 벼모를 평당 40-50포기, 포기당 한대씩 꽂기때문에 모운반이나 모내기에서 로력을 절약하면서 속도도 높일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이 재배방법은 자재절약형농법이다.

일반재배방법에서는 정보당 모판면적이 수십정 든다. 그러나 이 재배방법을 도입한 포전에서는 정보당 모판면적이 3-5정이면 충분하다. 그만큼 비닐박막, 활창대를 비롯한 모판자재가 절약된다.

종자소요량도 정보당 5-7㎏으로서 종전의 재배방법보다 종자가 훨씬 절약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가.

절약은 곧 증산이다. 적은 원가로 큰 실리를 얻는 벼강화재배방법이야말로 전망이 기대되는 농법이다.

벼강화재배방법은 분명철동무를 비롯한 농업연구원 벼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연구완성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들은 우리식의 다수확농법을 연구도입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그 과정에는 앞을 막아나선 시련의 고비가 수없이 많았다. 우리 나라의 기상기후조건과 토양상태에 맞는 벼강화재배리론과 방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난관이 거듭 앞을 가로막아도 이들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주저앉고싶을 때마다 그들의 심장을 불태운것이 있었다. 우리 인민들을 잘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시려 한평생 조전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념원,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한몸바쳐 받들려는 애국충정이였다.

황금벌의 력사를 빛내여나가는 길에서 우리가 개척자가 되자. 그들은 이런 각오를 안고 진펄길을 헤쳐나갔다.

개척자는 난관과 고생을 각오한 불굴의 의지의 소유자이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굴함없는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갔다.

승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개척자의 영예를 지닐수 있다. 몇해동안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이들은 끝끝내 벼강화재배방법을 연구완성하게 되였다.

내 조국을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수 있는 또 하나의 다수확농법은 이렇게 태여났다.

우리의 농업과학자들모두가 이들처럼 당과 사상과 슴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다수확농법의 개척자가 될 때 나라의 쌀독은 넘쳐날것이다.

방 영 진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는 초급일군들속에는 삼지연군 보서농장 제1작업반 반장 최철동무도 있다.

그의 집주변에는 높이 올려쌓은 커다란 거름무지가 있다. 이것은 최철동무가 작업반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짬짬이 마련해온것이다. 그는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면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포전에 한줌의 거름이라도 더 내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헌신하였다.

그의 실천적모범은 수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지고 작업반원들을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모든 논밭을 옥토로 만들어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일 불같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떨쳐나선 작업반원들은 거름실어내기와 유기질비료생산의 모든 공정들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갔다.

조건은 불리하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작훈을 부를 열의안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였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작업반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량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할수 있었다.

질과 지력을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였다.

로농통신원 김 선 월

모두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세폭의 붉은기를 앞장에서 휘날려가는 금골의 참된 광부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영광갱 3중3대혁명붉은기 박태선영웅소대 소대장 우승환동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입니다.》

굴지의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는 우리 나라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가 타오른 사연깊은 곳이다.

장장 수십년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폭의 붉은기 아래서 시대의 영웅으로, 혁신자, 위훈자로 자라났던가.

금골광산 영광갱 3중3대혁명붉은기 박태선영웅소대 소대장 우승환동무도 계속혁명의 세찬 물결속에서 3중3대혁명기수로, 오늘은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가 근 30년세월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채광공, 소대장으로 일하면서 조국의 무강번영을 위해 바치고바친 땀방울도 고귀하다. 하지만 소대의 모든 성원들을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억척의 성돌로, 광산을 떠받들고나갈 억센 기둥으로 키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그 공로는 수백, 수천의 광석보다 더 값진것이다.

불같은 헌신과 열정으로 이어진 그의 삶은 3대혁명기수들이야말로 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려야 할 사람들이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오늘도 래일도 우리의 전진을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대중운동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나는 3대혁명기수이다

수평갱도를 따라 20리, 수직으로 또 몇백m 내려가느라면 박태선영웅소대의 휴게실이 나진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 4월 어느날이였다.

3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닌 박태선영웅소대의 소대원들은 《박태선영웅소대》라고 씌여진 붉은 기발앞에 근엄한 자세로 서있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3대혁명붉은기훈장이 번쩍이고있었다.

(박태선동무, 오늘 우리는 동무가 그처럼 바라던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소. 오늘따라 3대혁명기수로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달리던 동무가 더 그리워지누만.)

우승환동무의 눈앞에는 소대가 3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결기하던 그날 제일먼저 연락에 올라 열번을 토로하던 박태선영웅의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정녕 영웅의 한생은 3대혁명기수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쓸랄음쳐온 나날이기도 하였다.

우승환동무는 소대원들을 하나둘 둘러보았다.

박태선영웅을 비롯하여 오래동안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 고락을 함께 하던 옛 전우들은 거의나 없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소대의 앞장에는 세폭의 붉은기가 영원히 높이 휘날려야 한다는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소대원모두를 박태선영웅처럼 키우리라.)

이윽고 우승환동무의 저력있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동무들의 가슴에 빛나는 3대혁명붉은기훈장에는 박태선영웅을 비롯한 전세대 동무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소. 우리 모두 더 높은 광물증산성과로 영웅소대의 영예를 빛내여나갑시다.》

소대원들은 한덩이의 광석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월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결의를 안고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던 몇해전 1월.

착암기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던 막장안에 갑자기 정적이 깃들었다.

채광력량이 약한 다른 소대가 맡고있는 채굴장과 소대의 채굴장을 서로 바꾸자는 우승환동무의 제의가 모두를 놀라게 하였던것이다. 그도그럴것이 조건이 좋은 채굴장을 다른 소대에 양보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들이였다.

이때 누구인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채굴장을 바꾸자는데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월계획이나 끝내놓고 채굴장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대실적도 고려하면서…》

소대에 새로 배치받은 한 광부의 말은 우승환동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실적이라니?! 단순히 소대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껏 광석을 캤던가.)

생산만 생산이라고 하면서 소대장으로서 새로 들어오는 광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그의 마음은 저으기 무거웠다.

불현듯 그의 머리속에는 언제나 자기 소대보다 광산의 생산을, 당앞에 지닌 광부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내달리던 박태선영웅의 모습이 떠올랐다.

온 소대가 영웅의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를 닮아가는 과정에 3대혁명기수의 영예도 지니게 된것이였다.

《우리는 3대혁명기수들이요. 기수의 위치는 언제나 돌격전의 맨 앞장이 아니겠소.》

얼마후 박태선영웅소대는 착암기를 둘러메고 새로운 전투장으로 향하였다.

이날 우승환동무는 소대원들을 박태선영웅처럼 키우는데서 소대장으로서의 자기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소대가 한 채굴장에서 발파작업을 할 때였다. 대피장소에서 귀맛좋게 울릴 발파소리를 기다리던 소대원들의 얼굴에 점차 긴장감이 어리였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파소리가 울리지 않았던것이였다.

모두가 어쩔바를 몰라하고있을 때 누구인가 움쭉 일어섰다. 우승환동무였다. 언제 폭약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정황이였지만 그는 도화선이 있는 곳으로 서슴없이 다가가 다시 불을 달았다.

얼마후 어찌하고 그런 모험을 하는가고 하는 소대원들에게 우승환동무는 땀젖은 얼굴을 문지르며 흔연히 말하였다.

《나야 소대장이 아니요.》

우승환동무는 이렇게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소대원들을 이끌었다.

그날 소대원들은 광물증산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한목숨도 기꺼이 내대는 소대장의 모습을 보면서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영웅소대원들은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박태선영웅소대에는 류다른 경쟁도표가 있다.

《누가 먼저 박태선영웅을 따라앞설가?》라는 글발아래 영웅의 이름이 새겨진 첫칸에는 결승선까지 붉은 줄이 그어져있다. 그리고 영웅과 나란히 소대원들의 이름이 씌여있다. 이 경쟁도표에도 소대원들이 박태선영웅처럼 참된 광부가 되기를 바라는 우승환동무의 마음이 비껴있다.

누구나 이 경쟁도표를 삶의 거울로 삼고 자기들의 생활을 비쳐보며 영웅처럼 살리라 굳은 맹세를 다진다.

영웅처럼 참된 광부가 되는 길에서 3대혁명기수의 영예도 빛난다.

이것은 우승환동무가 소대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영웅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는 나날 소대원들의 가슴속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천리마시대의 구호가 지나간 력사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표대라는 자각이 더욱 굳건히 자리잡게 되였다.

하늘높이 솟은 광석산도 하나하나의 광석으로 이루어지듯이 영웅소대의 영예도, 3중3대혁명붉은기집단의 명예도 3대혁명기수답게 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한명한명의 기수들에 의해 빛나는것이다.

기수가 달려야 기폭이 휘날린다

우승환동무는 광산석으로 손꼽히는 창의고안명수이기도 하다.

소대가 어느 한 채굴장을 라고앉았을 때였다.

그 채굴장은 실제상으로 10m의 폭으로 채광작업을 하게 되여있었다.

채굴장을 료해하다가 광맥이 15m정도의 폭으로 뻗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승환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나머지 5m폭의 광석도 동시에 먹을수는 없을가?)

우승환동무의 머리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섬광처럼 번뜩하는 착상에 무릎을 쳤다.

그는 며칠동안을 두고 고심하던 그 방안을 소대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소대원들은 우승환동무의 기발한 제기를 적극 찬성하면서 오랜 광무의 참된 광심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였다.

이렇게 되여 소대는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광물생산에서 놀라운 비약을 일으키게 되였다.

이러한 실례는 허다하다.

4개의 채굴장에서 동시에 채광작업을 진행할수 있는 공법을 창안한것을 비롯하여 우승환동무는 100여건의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고 20여건의 창의고안증서를 수여받았다.

박태선영웅소대의 소대원들은 우승환동무를 가리켜 《야학선생》이라고 한다. 때로는 새로운 천공배치방법과 발파법을 비롯하여 앞선 공법들을 배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난 시기 기술혁명의 나날에 있었던 일들을 감동깊이 들려주군 하는 그의 《강의》를 소대원들은 무척 좋아하고 기다리고있다.

소대원들은 이런 강의를 소대의 자랑으로 여기고있지만 그 준비를 위해 우승환소대장이 어떤 열정을 바쳐가고있는지 다는 몰랐다. 남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시간을 쪼개가며 일하는 우승환동무에게서 학습시간을 낸다는것은 조련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3대혁명기수의 영예를 빛내이자면 기술혁명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올려야 하고 그 앞장에는 다름아닌 소대장이 서있어야 한다는 각오를 안고 피타게 기슴을 태우고 지식의 탑을 쌓아갔다.

온 김력이 총정의 200일전투승리를 위하여 증산돌격전을 벌리던 두해전 8월 어느날이였다.

한창 착암작업을 하던 우승환동무와 소대원들은 꽝 하는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불과 몇발자욱을 사이에 두고 집채같은 돌이 떨어졌던것이다.

뜻밖에 갱안에 갇히게 된 소대원들의 긴장한 눈빛이 일시에 소대장에게로 쏠리였다. 약속이나 한듯 자기를 바라보는 어리쌍의 눈동자를 마주보는 순간 우승환동무의 마음속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자기들이 갱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직 모를수도 있었다. 붕락된 갱안에서의 한초한초는 생사를 다투는것이였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어기서 나갈수 있는 길부터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숨막힐듯 한 정적속에 들려오는것은 압축공기가 흐르는 소리뿐이였다. 만일 압축공기마저 끊어진다면 하는 위구심이 뇌리를 치는 순간 그는 저도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광물증산을 위하여 계속 앞으로 전진하겠는가 아니면 생명을 구원할 출구를 찾아 뒤로 돌아서겠는가.

갈림길에서 모대기던 그 짧은 순간에 그의 귀전에 저도모르게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것은 시계의 초침소리였다. 몇해전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몸소 수여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져있는 사랑의 손목시계였다.

심장과도 같이 귀중한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그에게는 초침소리가 마치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아련차의 발동소리와도 같이 들려왔다. 바로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벌떡 일어나 막장으로 다시 달려나오군 하였다.

그는 잠시나마 동요하였던 자신을 채찍질하며 착암기를 다시 틀어잡았다.

《압축공기가 살아있으니 됐소. 앞으로 나갑시다.》

그의 뒤를 따라 소대원들도 일손을 잡았다. 붕락된 갱속에서 쉬임없이 울린 착암기소리, 그것은 순간도 멈춤없는 박태선영웅소대의 숨결이기도 하였다.

퍼그나 시간이 흐른 뒤에 복구된 갱안으로 들어서던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했다.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며 착암기를 놓지 않은 불사신같은 그들의 모습도 놀라왔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온몸이 땀범벅이 된 소대장 우승환동무가 광산일군에게 열정적으로 하는 말이였다.

《이제 됐습니다. 새로운 채광법을 찾아냈습니다.》

지하수때문에 생기는 도화선절심현상으로 발파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늘 고심하던 그가 마침내 그 해결방도를 찾았던것이다.

붕락된 갱속에서 착암기를 돌리며 중단없이 전투를 벌린 그 사실자체도 감동적이다. 그런데 그속에서 광석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채광법까지 찾아냈으니 어머니당앞에 검덕의 영웅소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온넋을 불태우는 그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숭고한것인가.

영웅의 몫까지 합쳐 더 많은 광석을 캐내자면 소대원들 모두가 창의고안명수가 되여야 하고 3중3대혁명붉은기집단이 응당 기술혁명의 선구자집단이 되여 만리마시대의 전렬에 서야 한다는것이 박태선영웅소대 소대장인 그의 지론이다.

누구나 현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문제들에서 기술혁신의 종자를 찾아쥐고 그 실현을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쏟으며 바쳐나가던 나날에 소대는 창의고안명수, 기능공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기술혁명의 불길은 생산증산의 성과로 이어졌다.

생산조건이 제일 어려운 심부채굴장을 자진하여 맡아가지고 암질조건에 맞게 발파구멍수를 줄이면서도 락광량을 늘이는 천공방법을 받아들여 광산적인 생산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위훈도, 2개의 채굴장을 하나로 련결하고 방출구를 인도로 동시에 리용하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에 이바지한 성과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승환동무 (가운데)

이뿐이 아니다.

번듯하게 꾸려진 박태선영웅소대의 휴게실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한다. 역시 영웅소대의 일솜씨가 다르다고.

어기에도 우승환동무의 노력이 슴배여있다.

몇해전 어느날 그가 휴게실을 더 번듯하게 꾸리자고 말했을 때 소대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모두가 한덩이의 광석이라도 더 증산하기 위해 밤낮이 따로 없이 뛰고있을 때였다. 휴게실이야 후에 꾸려도 되지 않겠는가고 하는 소대원들에게 그는 말하였다.

막장에서 휴게실은 우리 소대의 집과도 같은것이다. 애국심은 자기 집 뜨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자기 일터를 자기 집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일터에 대한 애착심, 광부의 긍지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게 울렸지만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림에서도 3중3대혁명붉은기집단이 마땅히 앞장에 서야 한다는 그의 말은 광부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다음날 아침 소대원들은 우승환동무와 그의 안해 김명애동무가 세멘트와 모래가 든 배낭을 지고 인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우승환동무의 말없는 그 이신작칙은 소대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소대원들뿐아니라 그들의 안해들도 건설자재를 배낭에 지고 막장을 찾아왔고 교대작업을 마친 후에는 휴게실꾸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군 하였다. 마침내 훌륭하게 꾸려진 휴게실에서 소대모임을 하던 그날 소대장은 《누가 먼저 박태선영웅을 따라앞설가?》라는 경쟁도표를 더 크게 내붙였다. 그것은 그대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려는 박태선영웅소대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3대혁명의 불길속에 소대가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이 지면에 다 담을수는 없다.

기수가 달려야 기폭이 휘날린다.

언제나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웨치며 대오의 앞장에서 계속혁명의 봉화를 높이 들고 내달리는 기수가 있기에 전진하는 영웅소대의 기상이 그리도 즐기찬것이며 그들이 쌓아가는 광석산이 그리도 소중하고 빛나는것이다.

* *

당에서는 수십년세월 하루와 같이 천길지하막장에서 애국충정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3대혁명기수 우승환동무에게 사회주의애국공로자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었다.

이 땅에는 3대혁명기수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이 우승환동무처럼 자나깨나 3대혁명기수라는 부름앞에 떳떳하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만리마대진군속도는 더 빨라질것이다.

세폭의 붉은기 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길에 투쟁의 보람도 인생의 값높은 영예도 있다는 진리를 간직한 우승환동무는 오늘도 검덕의 슴결을 지켜 지하천초병의 빛나는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신 철

화선식경제선동으로 석탄증산투쟁 힘있게 고무

중앙과 지방의 경제선동대들에서

힘있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열풍속에 서부지구 탄전들이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새해벽두부터 수천척지하막장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온 중앙과 지방의 경제선동대원들이 3월에 들어와서도 집중적인 경제선동활동으로 탄부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경제선동중앙지휘부의 일군들은 현지에 전개된 중앙예술경제선전대와 여러 도, 시, 군경제선동대원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혁신창조, 증산성과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중앙예술경제선전대 대원들은 명학탄광, 룡산탄광, 인포청년탄광을 비롯한 전투현장들에서 남성독창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한번 대고조로》, 혼성2중창 《우리는 로동자부부》 등 사상성과 호소성이 강한 종목들로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매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신자축하공연의 내용과 형식을 다채롭게 하였다.

득장청년탄광으로 나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작가들은 석탄증산으로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시문학창작활동을 벌리였으며 자기들이 창작한 시작품들로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기적창조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정천, 서성, 룡성구역을 비롯한 평양시 각 구역의 경제선동대원들은 석탄생산으로 들끓는 2.8직통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평대탄광 등에서 힘있는 경제선동을 벌리는 한편 탄부들과 가족들의 생활을 적극 도와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을 발휘함으로써 탄광들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게 하였다.

청단, 배천, 연안군과 사리원시, 신평, 은파, 금천군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시, 군경제선동대원들도 덕천, 득장지구의 탄광들에서 특색있는 예술선동과 직관선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애국탄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는 개천탄광과 조양탄광 탄부들의 빛나는 로력적성과속에는 키워놨는 화선식경제선동으로 막장마다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울린 항구구역과 은천군을 비롯한 남포시의 경제선동대원들의 노력도 깃들어있다.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석탄증산으로 받들어가는 탄부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경제선동대원들이 울려가는 혁명적총공세의 북소리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꽃피는 일터

분덕군송배전소에서

문덕군송배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맡은 과업수행과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에 군송배전소의 면모가 몰라보게 일신된것은 물론 구내식당이 훌륭히 꾸려지고 축산기지도 더욱 활성화되여 종업원들이 덕을 보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그들은 어려동의 남새온실과 메기양어장을 땅이 아니라 건물우에 건설하였다. 말하자면 부지절약형으로 설계한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헤나가야 합니다.》

몇해전 군송배전소 소장사업을 시작하면서 단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조은철동무는 어깨가 무거워졌다. 한것은 자기 단위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자면 할 일이 많았던것이다. 여기에 드는 로력과 자재 등도 아름찼다. 하지만 그는 남의 손이 아니라 제손으로 자기 일터를 무릎 걸심을 굳히였다.

자기 단위의 사업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이 확고하면 앞길이 열리기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군송배전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일터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밀고나갔다.

이 사업을 내밀면서 잡한것은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일을 해제낀것이다.

두해전 구내포장을 할 때였다.

소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구내로장을 위해 만짐을 지고 말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워나갔다.

이들은 먼길의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판에 뛰여들어 종업원들과 같이 다짐작업을 해나갔다. 그런 속에 수백㎡의 구내바닥이 콩크리트로 포장되였다.

일군들은 한걸음 더 내짚어 종업원들을 남새온실과 메기양어장건설에로 불러일으켰다.

종업원들에게 실지 덕을 주어야 그들속에서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질수 있었다. 하지만 남새온실과 메기양어장을 어디에 건설할것인가 하는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구내를 둘러보아야 적합한 장소가 없었다. 그만큼 부지면적이 제한되여있었던것이다.

일군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일군들은 사색을 거듭하며 서로의 지혜를 합치였다. 그 과정에 건물우의 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우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면 남새온실들만이 아니라 메기양어장건설도 가능하기때문이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건물우에 여러동의 남새온실건설을 와닥닥 끝낸데 이어 련속적인 공격전으로 메기양어장건설에 달라붙었다. 모래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를 건물우에까지 올려서 양어장을 건설하자니 힘에 부치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리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온실식으로 된 양어장건설을 완공하고 메기를 기를수 있는 탑보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자기 단위를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비상한 각오와 립장은 일군들로 하여금 좁은 부지를 ㎡로가 아니라 ㎥로 리용할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은 그에 만족하지 않았다.

군송배전소에서는 돼지, 오리 등을 기르는 축산기지를 더 일떠세워 종업원들을 위한 후방공급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종업원들이 일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맡은 과업수행에 헌신분투하며 집단력과 전투력을 더욱 높이 과시할수 있게 하였다.

그러한 실례가 있다.

지난해 9월 강한 폭우로 도안의 여러 송배전단위들에 긴급전투과제가 제기되였다.

어느 한 탄전에 쓸어드는 물을 막자면 복우로 넘어진 고압전주를 시급히 세워야 하였던것이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체없이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추어섰다. 사품치며 흐르는 강물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던것이다. 물론 종업원들은 강을 에돌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자기 한몸보다 물에 잠길 나라의 귀중한 탄전을 먼저 생각하였던것이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에서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강물에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전투의 앞장에는 일군들이 서있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간을 다투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고압전주를 복구하였다.

결과 군송배전소에서는 제일먼저 제기된 전투과제를 훌륭히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결론은 명백하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 단위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립장에서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완강하게 내밀 때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올수 있다는 것이다.

특파기자 오철훈

조로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9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9돐에 즈음하여 20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이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로씨야 외무성, 문화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조선전쟁로병리사회, 로씨야 세계기금, 과학원, 따쓰통신사, 인테르팍스통신사, 자브뜨라신문사 등 정부 성, 단체, 기관의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한편 16일과 23일 하바롭스크와 울라지보스또크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가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랭동련쇄관리정보체계 개발도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학은 본질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며 병을 미리 막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임무입니다.》

최근 보건부문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예방약관리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랭동련쇄관리정보체계를 개발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 체계는 예방약을 생산한 때로부터 수송, 보관, 공급, 접종봉사에 이르는 전기간 표준보관조건대로 관리하는 약품관리공급체계를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수준에 끌어올린 예방약관리정보체계이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예방약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랭동련쇄관리정보체계가 개발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의약품관리는 치료예방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의약품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의약품관리정보체계개발에 힘을 넣고있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예방약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보건성 약무부문의 일군들은 몇년전부터 자체로 약품관리에 대한 프로그람들을 부단히 갱신하여왔다.

특히 각이한 온도를 요구하는 예방약들을 보관 및 운반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도입한 랭동련쇄관리체계를 보다 혁신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중앙에 앉아서도 한눈에 알수 있게 말단치료예방단위들에서 벌어지는 예방약소비량과 재고량, 약품별소비동태 및 소비종합자료 그리고 각이한 규격의 예방약운반설비들의 가동상태까지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프로그람개발은 전문가도 아닌 성일군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송영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대담하게 달라붙어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끝내 자체의 힘으로 완성하고야말았다.

이 프로그람이 개발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말단단위에 이르기까지 랭동련쇄설비들의 보유정형과 해당 지역의 주민수와 임신부수, 1살미만 어린이수는 물론 총적인 예방약보관정형과 입출고 및 재고상태를 실시간적으로 장악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즉시에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되였다.

랭동련쇄관리정보체계가 개발됨으로써 예방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다 높이고 인민들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이 체계를 도입한 단위들에서는 예방약에 대한 공급과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보건성의 일군들은 중앙의약품관리소를 비롯하여 여러 약품관리기관들과 치료예방단위들에 이 체계를 도입한데 기초하여 리인민병원들에까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전투를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유명한 특산이 많은 내 조국강산

인삼의 원산지인 개성지방을 찾아서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개성은 예로부터 인삼재배지로 명성이 높으며 개성인삼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국은 그 어디 가나 자원이 풍부하고 산좋고 물이 맑아 은금보화의 나라, 금수강산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우리 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특산이 매우 많은데 그가운데는 개성고려인삼도 있다.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으며 특산도 많은 내 나라의 아름다움과 풍요함을 글에 담아 방불하게 펼쳐보이고싶어 우리는 얼마전 인삼산지로 유명한 개성지방에로의 기행길에 올랐다.

인삼의 고향은 개성

기행준비를 서두르던 우리는 개성지방사람들속에서 인삼할아버지로 불리우는 김현우로인을 만났다. 그가 개성고려인삼의 기원과 재배력사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던 우리는 반가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유적기행집 《황성혈흔》의 저자이기도 한 인삼할아버지와 함께 이어가는 우리의 기행길은 시작부터 흥미있는 인삼이야기로 가득차게 되였다.

《우리 개성을 인삼의 원산지로, 세계적인 인삼산지로 빛내여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두를 뗀 인삼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면서도 구수하게 이어졌다.

…인삼이라는 이름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다. 먼 옛날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 인삼의 원산지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개성지방에서 나는 인삼을 고려인삼이라고 불렀다.

고려시기에 고려인삼, 고려자기와 같은 특산품들에 대한 대외무역이 매우 활발하였는데 이때부터 세계는 우리 나라를 《코레아》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고려인삼이라고 하면 통역이 없이도 그 어느 나라 사람이나 쉽게 리해하고있다. 현재 인삼을 재배하는 나라와 지역은 많지만 개성은 고려인삼이 나는 으뜸가는 인삼산지로 되고 있다. …

로인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듯 싶었다. 종일 들어도 싫지 않을 인삼강의였다.

어느덧 차는 평양-개성고속도로를 따라 개성시를 가까이 했다. 험준한 산발들과 봉선들이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흘러가더니 드디여 개성분지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연 개성은 사람들의 말대로 묘한 지세속에 있는 귀한 보물과도 같이 보배로운 고장이라는 생각이 저도모르게 들었다.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개성지방은 세상에 놀도 없는 대로천인삼밭불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성시 삼포동일대에 가면 우리 나라에서 오랜 옛날부터 인삼재배를 하여왔다는것을 보여주는 유적들과 전설들, 실화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여 우리는 개성시에 도착하는 그길로 이 고장 사람들과 함께 삼포동일대에 대한 탐승의 길에 올랐다.

우리가 삼거리소재지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는 하천을 지나 동쪽으로 200m정도 가니 삼포동이 나졌다. 유명짜한 인삼바위가 있다는 삼모판으로 오르는 길은 험치 않았다. 우물 올려다보니 아찔하게 솟은 벼랑턱에 인삼바위가 눈부신 자태를 한껏 드러내놓고있었다. 아래에서 볼 때에는 곧추 서있는것 같았던 인삼바위가 가까이에 다가가보니 약간 기울어져있는감이 들었다. 높이는 3m가 실히 넘어보였다.

우리와 동행한 농업연구원 인삼연구소 소장은 인삼바위는 동남방향으로 57° 가량 기울어졌었다고 하면서 실지로 인삼을 심을 때 동쪽으로 50-60° 되게 눕혀 심는다는데 대하여 흥미있게 이야기하였다.

인삼바위의 신통한 생김새를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김현우로인은 문득 이런 물음을 던지였다.

《저 인삼바위가 영지삼같습니까? 아니면 묘삼같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니 인삼바위의 머리부에 두개의 《뿔》이 나있는것이 보였다. 인삼에는 줄기가 가을에 떨어지면서 남긴 흔적들이 있는데 그 수에 따라서도 인삼의 생육년도를 알수 있다고 한다.

로인은 인삼바위에 두개의 《뿔》이 돋아있는것을 보아 다른 영지삼이 아니라 3년생 삼이 분명하다고 즐거운 목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여 우리 일행은 인삼바위주변에 있는 맑은 샘터가까이에 빙 둘러앉았다. 물맛이 어찌나 좋은지 탐승길에 쌓였던 피로가 순간에 다 풀리는것 같았다. 확실히 개성고려인삼이 나는 고장이여서 그런지 이르는 곳마다에 장수샘물도 특별히 많았다.

샘터에서 한숨 돌리고난 우리 일행은 마침내 삼포동 명마루에까지 올랐다.

여기에서 굽어보는 삼포동의 전경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남몰래 인삼을 먹던 농부가 돌로 굳어졌다는 농부바위, 삼포동 명마루를 지켜선 참배바위를 비롯하여 눈뿌리가 닿는 곳마다 장관이였다.

인삼의 고향에서 대대손손 살아가며 행복을 가꾸어가는 이곳 사람들의 긍지와 보람이 정말 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삼의 왕-개성고려인삼

삼포동을 내려 개성시 송악동에 있는 오랜 옛적의 홍삼제조소가 있던 가마몰터를 비롯하여 인삼과 관련이 있는 여러 유적들과 명소들을 돌아본 우리는 오산대성인삼사업소에로 향하였다.

겨우내 겨울잠을 잔 각이한 년생의 인삼포전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이곳 사업소지배인은 포전에서 인삼을 한뿌리 캐여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이 6년생 개성고려인삼입니다. 개성고려인삼이 세계가 인정하는 인삼의 왕으로 되고있는것은 원산지인 개성지방의 특유한 기후풍토와 관련되여있습니다. 개성고려인삼은 토질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데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학자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인삼재배방법을 몇년동안 연구한 다음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인삼을 심어본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에 저도모르게 귀가 솔깃해졌다.

그렇게 재배하여본 인삼은 개성고려인삼과 형태는 비슷하였지만 약효능은 못하였다.

그런가하면 1930년대에 개성의 인삼재배전문가들이 다른 나라 인삼품종들을 개성지방에 가져다 시험재배하여보았는데 그중 적지 않은것들이 자기의 본래모습과는 다른 고려인삼의 모습을 형태적으로 닮아가기 시작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개성고려인삼이 인삼의 왕이라는것을 뚜렷이 알수 있다. …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인삼을 아무 땅에나 심는다고 되는것이 아니며 화강암, 화강편마암, 규암, 석회암 등이 풍화되여 생긴 땅이 제일 적합하다는것, 재배지가 비옥하여야 하지만 아무 부식토나 쓰면 안된다는것, 인삼은 물기를 좋아하지만 지나친 누기도 싫어한다는것 등 개성지방이 인삼재배의 적지라는데 대하여 원리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이 고장 토배기들의 말에 의하면 예로부터 인삼재배는 너무도 품이 많이 들고 매우 까다로운것이여서 인삼을 가꾸기 보다는 호랑이를 길들이기가 낫다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옛책에는 인삼이 센 빛을 싫어하고 숲속의 가지와 잎사귀사이로 스며드는 해빛을 제일 좋아한다고 씌여져있다.

우리 선조들은 인삼재배경험을 쌓아나가는 과정에 싹틔우기방법과 나래로 해가림대를 씌워 밭에서 인삼을 가꾸는 방법을 완성하였다. 고려사람들은 인삼씨를 심어서 어섯해만에 캐는 어섯해가꾸기법도 내놓았다.

어느 한 나라의 생물학자는 인삼을 《풀처럼 보이는 나무》라고도 하였다. 겨우내 잠자던 뿌리에서 언제인가는 싹트군 하는 미묘한 식물이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인삼재배력사는 파고들면 들수록 오랜 옛날부터 그렇듯 진귀한 약초인 인삼을 재배하여온 우리 민족의 슬기와 총명함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하였다.

《개성고려인삼은 토양과 기후가 다 좋아서 유명해졌지만 보다는 그것을 가꾸는 사람들의 마음을 닮아서 그 모양까지도 제일 잘 생겼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도중에 이런 우스개소리를 하는 바람에 일행속에서는 웃음보가 터졌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삼품종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몸체와 꼭같이 생긴 개성고려인삼에는 사나이삼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다고 한다.

6년생 개성고려인삼을 자세히 보니 몸체는 무사의 어깨처럼 다부지면서도 장대한 느낌을 주는것이 특징적이였다.

일찍부터 이웃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군자불사지국》 즉 사람들이 점잖으며 오래 사는 나라로 불러왔으며 고려인삼을 구하려고 대양을 건너 우리 나라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진귀한것으로 여겼던 물소 4마리를 가지고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쳐온 어느 한 나라의 상인에게 인삼을 주어서 보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있다.

고려의 무역항이였던 벽란도는 인삼을 구하려 오는 외국상인들로 하여 돛대가 숲을 이루었고 이웃나라들에서는 고려인삼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하여 약방의 문이 메워질 정도였다고 한다.

《개성고려인삼은 라지방사람들이 쓰면 약초가 더 빨리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고려인삼이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해진것 같습니다.》

고려인삼이 어찌나 유명하였던지 어느 한 나라의 사신은 삼을 구입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3년동안 돌아가지 않고 버티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은금보화라고 할 때 개성고려인삼도 거기에 속하였다. 그리하여 은이 귀하면 삼을 쓰고 삼이 귀하면 도로 은을 쓰라는 말까지도 생겨났다고 토배기로인들까지도 인삼과 관련한 옛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우리 나라 고려의학고전들인 《의방류취》, 《향약집성방》, 《동의보감》에도 인삼처방이나 인삼이 포함되여있는 처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총명하고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삼을 재배하고 건강증진에 적극 리용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인삼재배전문가들은 말하였다.

개성고려인삼의 놀라운 약효능을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한 일군은 우리 나라 인삼의 뿌리깊은 연원을 밝혀주시고 개성이 인삼의 원산지로 세계에 빛을 뿌리도록 하여주신분은 어버이수령님이시라고 감동에 젖어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 민족의 귀중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말살하려고 일제는 인삼바위가 있는 산줄기가 뻗어내린 삼포동 명마루에 여러개의 쇠말뚝까지 박으며 온갖 간악하고 비렬한짓을 다하였다. 지금도 삼포동 명마루에는 영원히 풍화될수 없는 죄악에 찬 쇠말뚝들이 녹쓴채로 남아있는것이였다.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제의 발급밑에 짓밟혀 신음하던 개성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삼산지로 빛내여주시였을뿐아니라 개성지방의 오랜 토배기들도 잘 모르던 우리 나라 인삼의 기원과 재배력사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고 일군은 가슴뜨겁게 이야기하였다.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우리는 다음기행로정을 이어갔다.

본사기자 리 수 정

대중체육열의와 집단의 단결력

온천군 읍 녀맹원들

뜨거운 애국심을 지니고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가는 미더운 녀성들속에는 온천군 읍의 녀맹원들도 있다.

군당책임일군의 말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온천군 읍의 녀맹원들이 읍거리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녀맹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리는 속에서도 녀맹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아침마다 출근길에 오른 군안의 근로자들에게 신심과 락관을 북돋아준 사람들도 다름아닌 읍녀맹원들이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곳 녀맹일군들과 녀맹초급일군들을 만나보았다.

어떻게 되여 녀성집단의 단결력을 과시하며 나라에 도움을 주는 많은 일들을 하였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들은 한결같이 대중체육열풍이 안아온 결실이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녀맹위원장은 얼마전 군경기장에서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온천군녀맹일군들과 읍녀맹원들의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진행되였는데 그때 있은 가지가지의 일화들을 통해서도 읍녀맹원들의 대중체육열의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읍초급녀맹위원회의 여러 부문위원장들에게서 들을수 있었다.

《뭐니뭐니해도 관람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는 우리 부문 녀맹원들이 망라된 팀과 다른 부문 녀맹원들이 망라된 팀사이에 벌어진 바줄당기기준결승경기였습니다.》

이렇게 말꼬리를 뗀 어느 한 부문위원장은 자기 팀의 녀맹원들은 상대팀의 녀맹원들보다 몸은 비록 제소했지만 지휘자의 박력있는 지휘에 맞추어 평시에 이악한 훈련으로 튼튼히 다진 집단의 힘을 총폭발시키면서 3회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가하면 다른 부문위원장은 자기 부문 녀맹원들의 특색있는 응원에 대한 자랑을 펼쳐놓았다.

《우리 부문 녀맹원들이 꽃, 기발, 고무풍선 등 각양각색의 응원기재들로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멋들어진 응원모습을 펼쳐놓았을 때 세대주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른 군에서 무용에 조예가 있는 녀성들을 따로 초빙해오지 않았는가 하고 처음엔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부문 녀맹원들은 응원도 경기승패에 큰 영향을 준다는것을 명심하고 여러가지 기재들을 적극 활용한 격동적인 응원으로 선수들의 사기도 북돋아주고 집단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품을 많이 들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녀맹초급일군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치렬하게 벌어진 다양한 종목의 경기들과 특색있는 응원모습을 다시금 보는것 같아 흥그러워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지난 시기 이곳 녀맹원들은 국가적명절과 휴식일은 물론이고 녀맹돌격대활동으로 바쁜 속에서도 작업의 쉴참마다 대중체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대중체육열의가 얼마나 높았던지 어느 휴식일에는 남편과 자식들까지 녀맹원들의 훈련대상이 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끈적도 있었다.

날로 높아가는 대중체육열의와 더불어 집집마다에 웃음꽃이 피여났고 군안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려는 읍녀맹원들의 전투적사기도 더욱 고조되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더욱 단합된 집단으로 자라난 읍녀맹원들은 올해에만도 수천t의 거름을 생산하여 군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으며 군양묘장에서 수십만그루의 나무모옮겨심기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고 읍지구에 수천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는 성과도 이룩할수 있었다.

드세찬 대중체육열풍속에 이곳 녀맹원들의 애국의 열의도 더 높이 분출되고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준 어운은 정말 컸다.

활력에 넘쳐있는 그들의 신심드높은 모습에서 우리는 더 훌륭하게 전변될 온천땅의 래일을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백 성 근

학생들을 훌륭한 민족악기연주가들로 키우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간다.
—청진학생소년궁전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토산군 백화리에서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토산군 백화리에서 혁명적인 노래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데서 노래를 통한 교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초급일군들과 선동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초급일군들과 선동원들은 새로 나오는 노래들을 농장원들에게 제때에 보급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대중속에 들어가 《우리는 만리마기수》, 《사회주의전진가》와 같은 노래들에 담겨진 시대의 숨결과 정신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노래도 함께 부르면서 일터마다에 언제나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이곳의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혁명의 노래,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하는 올해에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하여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광 복

공화국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지식인들

관록있는 언어학자, 력사학자 홍기문

김일성종합대학 교편을 잡고 어학, 력사학분야의 수많은 도서들과 론문들을 집필하였으며 여러권의 민족고전들을 번역하였다.

홍기문선생은 주체52(1963)년부터 사회과학원 부원장으로 있었으며 다년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과학부문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 홍기문선생을 부르시여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조선봉건왕조실록번역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그에게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언제인가 홍기문선생은 어느 한 나라의 이름있는 학자를 만난 자리에서 성공한 자기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내 개인이야 무슨 큰 존재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빛난다면 그것은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내 조국의 존엄과 권위때문입니다.

수령이 위대하고 당이 강하면 그 민족이 강해집니다. 하기에 문선생, 그는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이라는 긍지와 환희를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본사기자 길 성 룡

우리 인민의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는 옷차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대의 요구와 날로 높아가는 사람들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옷차림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옷차림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고상하면서도 화려하게 하면 사회의 문명한 풍조와 사람들의 아름다운 용모가 더욱 살아나게 된다.

옷차림을 잘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의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게 옷을 잘 만들어입는것이다.

옷을 잘 만들자면 우선 옷의 몸파선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최근 옷의 몸파선은 옷품의 여유를 적당히 두면서 전반적으로 허리곡선형을 주는것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이와 함께 깃너비도 약간 넓게 하여 활달한 느낌을 주는것이 좋다.

남자양복설계도 옷품여유를 약간 작게 주어 지난 시기처럼 남는 주름이 생기는것을 없애는 방향에서 하고있다.

고상한것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은 겉옷의 여유를 지나치게 작게 주어 몸의 몸짱이 드러나는것을 천한것으로 보았다.

그렇다고 하여 옷을 너무 크게 만들어입는것도 현대적미감에 맞지 않는다.

옷차림을 잘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옷을 만들 때 옷의 형태와 색갈에 맞는 단추와 장식품을 잘 선정하여 다는것이다.

단추는 옷을 입고벗는데만 리용되는것이 아니라 옷의 형태와 품위를 돋구어주는 중요한 요소로도 된다.

옷의 크기와 색갈에 맞게 단추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녀성들인 경우에는 옷의 형태에 따라 단추를 특별히 크게 하거나 위치를 독특하게 설정할수 있다.

단추색을 옷색갈과 같게 하거나 약간 진한 색으로 할수도 있으며 옷을 만든 천과 같은 천으로 감싸서 리용할수도 있다.

옷의 장식은 수장식, 띠장식, 리봉같은것을 리용한 장식 등으로 하는것이 좋다. 이러한 장식들은 옷의 형태와 색갈에 잘 어울리면서도 조화가 되게 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크거나 자극적인것은 피하면서도 옷의 어느 한 부위만을 강조하는 장식은 새로운 감을 줄수 있다.

누구나 우리 인민의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게 옷차림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때 사회주의 우리 생활에는 더욱 문명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가 넘쳐흐를것이다.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 교수 박사 장 점 희

감기의 예방과 고려치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질병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이 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감기는 비루스에 의하여 생기는 상기도감염증이다. 찬 바람을 맞거나 대기온도에 맞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할 때, 가스를 들이마시는것 등이 요인으로 된다.

고려의학에서는 사철 어느 계절에나 다 생기는 외감병을 감모(감기)라고 하며 원인은 유기체의 저항성이 약해진 틈을 타서 병적인자가 사람의 몸에 침습하여 생긴다고 본다.

감기의 주요증상은 코물, 재채기, 기침, 열나기 등이다.

감기는 급성으로 발병하여 2~3일 지속되다가 1주일을 전후하여 낫는것이 보통이다.

돌림감기를 비롯하여 감기를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편도염, 기관지염, 폐염을 비롯한 만병의 시초로 될수 있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육을 통한 몸단련에 선차적관심을 돌려 몸의 저항성을 높여야 한다. 아침달리기와 걷기, 업간체조, 건강태권도 등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방안온도를 잘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감기에 걸리기 쉬운 봄과 겨울철에 건강관리를 잘하여야 하며 2~3%소금물로 함수를 하거나 마늘을 짓찧어 그 냄새를 코로 흡입한다.

저녁에 찬물로 2분정도 발에 얼이 날 정도로 비비면서 씻거나 족삼리, 대추혈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것은 감기의 예방에 좋은 방법이다.

감기에 체기가 겹쳤을 때에는 생무우를 채칼로 쳐서 밥사발에 절반정도 되게 다져넣고 꿀을 천천히 부어 무우가 잠기게 한 다음 뚜껑을 덮고 깨끗한 보자기로 싸서 더운 곳에서 하루밤 지나면 무우즙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한두술가락씩 여러번에 나누어 먹으면 좋다. 소화장애가 겹친 어린이 감기에 좋다.

고려의학적인 치료로서는 몸을 덥게 하고 땀을 내게 하는 원칙에서 패독산, 향소산 등을 쓴다. 패독산은 우리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감기치료에 널리 써온 고려약으로서 일반감기뿐아니라 돌림감기치료에도 쓸수 있다.

고려의학연구원 연구사 교수 박사 고 명 진

띄움식해상풍력발전기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해상풍력에 의한 전기생산을 위해 넓은 해역에 설치할수 있는 띄움식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바다우에서는 바람속도가 빠른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것은 풍력발전에 유리할뿐아니라 풍력발전을 큰 규모에서 전개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현재 운영되고있는 해상풍력발전기는 대체로 바다밑에 고정한 구조물우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여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수심이 깊어질수록 구조물의 제작원가가 급격히 높아지고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주로 수심이 얕은 해역에 설치되고있다.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에서는 수심이 깊은 해역에도 설치할수 있는 띄움식해상풍력발전기를 적극 개발하고있다.

띄움식해상풍력발전기는 풍력발전기를 띄움체우에 설치하고 띄움체를 여러개의 닻줄로 바다밑에 고정하는 형식의 구조물이다. 이러한 구조형식은 바다밑에 고정된 구조물이 따로 없고 바다밑에서의 공사가 필요없으므로 제작원가와 설치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띄움식해상풍력발전기의 제작원가는 설치깊이가 수십m이상으로 깊어져도 큰 변화가 없다. 또한 대형운반선이나 특별한 작업선이 없이도 발전기를 설치할수 있기때문에 제작원가와 설치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다.

띄움식해상풍력발전기는 띄움체가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고정구조물식에 비해 안정성이 낮다. 그러므로 띄움체의 진동과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매우 중요하다.

본사기자

세계 여러 나라의 식사례법들

나라마다 고유한 식사예법들이 있다.

유럽사람들은 식사칸에 들어가면 녀성이 앉은 다음에 남성이 자리를 잡는다. 커피를 마실 때 접대로 숟가락으로 떠마시지 않는다. 앞수킨은 1/4을 접어서 접은 부분이 우로 올라오게 자기 무릎우에 놓고 리용하는데 식사도중 나갔다가 올 일이 있으면 앞수건을 보기 좋게 접어 의자에 놓으면 된다. 이것은 《나는 일이 있어 갔다와서 식사하겠다.》라는 의미로 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녀자가 손님을 특별히 접대할 때에는 손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인사말을 하면서 손님의 입안에 넣어준다. 이것은 그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만 적용되는 풍습이다.

또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알고 안주인이 그것을 준비하여두는 풍습과 손님이 많이 먹는 음식을 계속 내놓는 풍습이 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식사할 때에는 음식을 차례로 내놓는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공통적인 식사례절이다.

어느 한 아시아나라 사람들은 특차를 즐겨마시는데 고루에 차를 찰랑찰랑 넘쳐나게 부으면 《돌아가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여긴다.

유럽에서는 누구나 포도술에 대한 조예가 깊기때문에 료리에 알맞는 포도술을 제대로 고를줄 알아야 교양있는 사람으로 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식사중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것이 좋은 일로 되고있으며 음식을 먹다 남겨도 례절에 어긋나지 않는것으로 여긴다.

본사기자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여 긍지높은 조선인민

오늘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이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될수 있은것은 절세의 위인들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 메디아》는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미증유의 전환을 이룩한 20세기와 더불어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길이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반제반미투쟁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업적과 인간사랑의 성스러운 력사, 고매한 풍모를 찬양하였다.

인디아신문 《인디안 엑스 웹드 이벤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이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칭송하는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라고 하면서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일떠세워주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공화국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도록 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씨야인터네트홈페지 《그리폰-베르쏘날》은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일성동지는 한 나라의 수령이시기 전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과 농촌에 가시여서는 로동자들과 농장원들의 생활부터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그이이시였기에 조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가 실시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이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제일로 관심하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투철한 후대관을 지니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하기에 조선의 어린이들은 그이를 스스럼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이뿐이 아니다.

캄보쟈신문 《노코르 톰 데일리》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들은 조선인민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기치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높이 찬양하였다.

신문은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와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들을 마련해놓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천만군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상과 운명을 같이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어 조선은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전진할수 있었다, 김정일각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곳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들이 펼쳐지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되였다, 그이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실로 위대하다고 하면서 절세의 위인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금치 못하였다.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김정일령도자의 공모에서 혁을 이루는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였다. 인민을 그처럼 열렬히 사랑하시였기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세상에 없는 인덕정치를 더욱 활짝 펼치시였다. 그이께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공세가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말엽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것도 인민의 세상인 사회주의와 인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헌신하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인생관이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기어이 가신분이 다름아닌 김정일령도자이시였다.

이런 령도자를 조선인민이 어버이라고 부르며 따르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는 인민의 명승지로 훌륭히 꾸려진 묘향산을 돌아보고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걸고 걸으신 불멸의 자욱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참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인류사에는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많이 기록되여있지만 김정일동지처럼 비오는 날 험한 산발을 몸소 헤치시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휴식을 위한 등산로정을 개척해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헌신의 력사를 세상사람들은 다는 모르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훌륭히 이어지고있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최세의 위인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최대의 행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에 국제사회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브라질신문 《아구아 베르데》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현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이시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일관하게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신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한 현지지도로 날과 달을 보내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것을 강조하신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국가지도자에 앞서 어버이로, 스승으로 따르고있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늘날 행성에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분은 다름아닌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다. 천만군민을 하나와 같이 움직이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해나가시는 그이의 령도예술에 국제사회가 경탄하고있다. 령도자가 위대하여 조선은 온 세상이 격찬하는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해빛처럼 밝은 세상, 그늘이 없는 행복의 무릉도원을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가꾸어나가신다. 세계는 그이의 모습에서 력사의 시련과 모진 광풍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불의를 짓부시며 강대해지는 정의의 힘을 보고있다.》

그렇다.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은 이 세상 가장 긍지높고 존엄높은 인민이다.

정 원 준

현정세흐름에 배지되는 위험한 움직임

남조선군부세력이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언론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군부는 가까운 몇해안에 미국으로부터 《F-35A》스텔스전투기 40대를 끌어들여 공군에 실전배비하려 하고있다. 우리의 주요군사시설들에 대한 《정밀타격》을 꾀하며 도이췰란드제장거리공중대지상미싸일 《타우루스》의 도입도 다그치고있다.

한편 남조선군부는 우리를 겨냥한 《신작전계획》이라는것을 완성하였다. 그것은 전쟁초기 특수전병력과 해병대, 미싸일 등을 총동원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부터 전면타격을 가하기 위한 도발적인 불장난각본이다. 호전광들은 이 전쟁계획의 실천을 위해 2600여기의 각종 탄도미싸일들을 몇년내에 확보할 기도를 드러내고있다. 그리고 신형전술지상대지상미싸일과 《현무》탄도미싸일로 우리를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타격려단을 새로 내오려 하고있다. 이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화해와 단합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다.

지금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는 매우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고있다.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리고 조선반도에 정세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귀중히 여기고 그 기운을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통일위업을 추동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나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현정세흐름에 배치되게 무력증강과 새로운 전쟁각본실천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한 화해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때에 벌어지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군사적대결책동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군부세력의 도발소동은 《대화있는 대결》을 떠들며 북남관계의 파국과 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한 과거 리명박, 박근혜보수패당들의 무모한 망동과 결코 다를바 없다. 지난 시기 6.15가 열어준 길을 따라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한것은 《북에 끌려다니지 않는 대화》를 운운하며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에 광분한 리명박패당의 반통일적망동의 후과이다. 우리의 성의와 노력으로 마련되였던 북남관계개선의 소중한 기회들이 날아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립이 나날이 격화된것도 《전쟁중에도 대화는 있다.》는 당치않은 수작을 줴치며 미일상전들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뛴 박근혜패당때문이다.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책동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으며 대화의 막뒤에서 군사적대결을 추구하는것은 우리에게 통할수 없다.

곡절많은 북남관계사는 속에 품은 칼을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나갈수 없고 설사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도 하루아침에 백지장이 되고만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세력은 《정밀타격능력확보》를 떠들고 《신작전계획》실천에 광분하며 정세완화의 흐름에 공공연히 역행해나서고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현정세국면은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온 겨레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나가기를 바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아직은 모든것이 살얼음장우에 놓여있다는 소리를 하면서도 우리의 면전에서 불순한 군사적대결을 추구하고있는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딴꿈을 꾸고있다고밖에 말할수 없다.

그가 누구든지 우리의 선의와 아량을 오판하고 힘으로 우리를 시험하려들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과국을 빚어내게 될것이며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은 정 철

제 허물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추태

걸핏하면 남을 헐뜯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제집적인 악습이 또다시 드러나고있다. 이자들은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성폭력고발활동과 관련하여 때를 만난듯이 그 무슨 《성추문당》이니, 《꼬리자르기》니 하고 남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있다.

박근혜역도에 이어 최근 리명박, 전두환역도까지 검찰수사대상으로 되고 이로 하여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성폭력고발활동을 저들의 처지를 모면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서 여론의 눈길을 딴데로 돌린 심산밑에 남의 약점을 물고늘어지는 너절한 수법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망동은 참으로 뻔뻔스러운것이 아닐수 없다. 사실상 이 반역당것들은 남을 걸고들 체면이 없다. 남조선에서 《성추문당》으로 락인찍힌것은 다름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리승만역도의 《자유당》으로부터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변신을 거듭해왔지만 그 력사를 캐볼수록 패륜패덕의 자욱들만 랑자하다. 이 당의 이전 사무총장 최연희의 녀기자성추행사건, 전 《국회》의원 강용석의 녀학생성희롱사건, 이전 당대표 안상수의 성희롱발언, 역시 이전 당대표인 김무성의 녀기자성추행사건, 이전 상임고문 박희태의 녀봉사원성추행사건 등 보수패당의 추잡한 성범죄들을 일일이 짚자면 끝이 없다.

오죽하면 련이어 터져나오는 보수패당의 성추문사건들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가 호색광들로 이루어진 이 반역당에 《성나라당》, 《색누리당》, 《성추행당》, 《색정당》의 딱지를 붙였겠는가.

적폐청산투쟁기운이 날로 고조되는 속에 적폐의 본산인 《자유한국당》을 매장시키자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겁을 먹은 보수패거리들이 저들에게 등을 돌려댄 민심을 어떻게 하나 끌어당겨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하고있지만 그것은 쓸데없는것이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성추문》이니, 《성폭력》이니 하며 제법 큰소리를 치고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제 허물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추태이다.

남조선보수패거리들이 남을 걸고들며 망동을 부리면 부릴수록 저들의 추악한 실체만 더욱 로출되고 그로 하여 민심의 비난만 높아갈뿐이다.

최 진 향

끝까지 파헤쳐야 할 《세월》호참사

남조선에서 감옥귀신이 된 박근혜가 《세월》호침몰사건과 관련한 검찰조사를 또다시 거부해나섬으로써 각계의 분격을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최근 남조선검찰은 박근혜와 그 일당이 《세월》호침몰사건당시 저들의 부실한 대응을 감추기 위해 오전 9시 30분이였던 첫 《대통령》보고시간을 오전 10시로 고쳐놓은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감금되여있는 박근혜를 찾아갔을 때였다.

후안무치한 역도는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당치않은 핑계를 대며 그들과 만나는것조차 거부하였다. 실로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몇해전 《세월》호침몰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박근혜가 7시간동안이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제불장만 보다가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을 검푸른 바다물속에 수장시킨 죄악을 저질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때로부터 남조선인민들은 《세월》호참사를 빚어낸 역도의 죄악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고 그에 따른 응당한 징벌을 가할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박근혜〈정부〉는 배가 가라앉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살릴수 있었던 생매같은 아이들이 박근혜때문에 비명횡사했다.》…

이것이 그 귀중한 7시간동안 분초를 다투는 어린 학생들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의 향락만을 추구하며 돌아친 극악한 살인마, 천하의 악귀 박근혜를 단죄규탄한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수많은 인민들의 피의 절규이다.

《세월》호참사는 결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박근혜역도의 반인민적악정이 빚어낸 인재였다. 박근혜역도와 그의 측근들과 《바른정당》에서 뛰쳐나온 《복당파》들에게 당신의 요직들을 안겨주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이 내부싸움이 잦은 《자유한국당》안의 알륵을 더한층 격화시켜 요직에서 밀려난 강릉시장을 비롯하여 1000여명이 줄줄이 탈당하였다.

역적패당은 제집권에 대한 희망한 망상을 당장 걷어치우고 저지른 만고죄악으로 영원히 매장되여야 하는 저들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단 평 도적왕초의 서투른 잔꾀

부정부패행위를 비롯한 각종 죄형범죄를 지지르고 검찰당국의 조사를 받고있는 리명박역도가 자기가 받은 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용도가 아니라 그 무슨 《대북공작자금》으로 썼다는 황당한 수작을 내뱉았다. 그리고는 측근졸개들을 내세워 《당시 남북접촉을 위해 돈이 필요했다.》느니, 리명박의 《진술은 당시상황과 일치하다.》느니 하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자기 수작을 합리화해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다.

참으로 돈도적질과 거짓말, 교활성으로 잔뼈를 굳히고 쥐명박으로 이름을 날린 역도만이 생각해낼수 있는것이 아닐수 없다.

리명박역도와 그 녀편네가 엄청난 액수의 정보원특수활동비를 제 집돈 찌내듯이 가져다가 해외려행비로 랑진하고 지어 상품구입에까지 써먹었다는것은 이미 측근들의 진술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심지어 역도의 형인 리상득까지 리명박을 등대고 역대의 정보원특수활동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앞에 남조선 각계는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리명박역도가 부정할수 없는 명백한 범죄자료들이 드러난 지금에 와서까지 자기의 더러운 돈도적질을 정당화하며 그 놀음에 남까지 끌어들이려 하였으니 참새에게도 굴레를 씌울 역도의 그 교활성에 누구인들 혀를 치지 않겠는가.

하지만 리명박역도의 그런 오그랑수는 통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역도의 수작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검찰당국도 리명박의 설명은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짜맞추기를 한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였든지간에 정보원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자체가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교활한 말장난으로 자기의 죄과를 덮어보려던 역도는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고말았다.

리 성 호

위구와 불안, 초조감의 발로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6월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를 통해 재집권의 발판을 닦아보려고 발광하고있다.

홍준표는 지난 1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통합과정에 《자유한국당》과의 2단계통합론을 놓고 론정이 벌어졌을 때 《미니정당은 흡수대상이지 통합대상도 아닌데 미니정당대표가 제1야당에 대해 통합을 운운하는것은 지나가는 소도 어이없어 웃을 일》이라고 떠벌이였다.

또한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으로 있을 때의 지지률을 빗대고 《3등과 4등을 합치면 7등이 된다.》고 조소하였는가 하면 《바른미래당이 어차피 이쪽저쪽에서 다같이 비난을 받을것》이라고 고이댔다.

패륜패덕의 무리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과떨의 시각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박근혜역도의 폭두각시, 하수인이 되여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파쑈독재와 부정부패,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인민들과 민족앞에 죄악만을 쌓아온 《자유한국당》에는 정치간상배집단, 도적왕초무리, 호색광 등 별의별 오명이 다 붙어있다.

거기에다 내부에서의 끊임없는 반목질시로 하여 《자유한국당》은 사분오렬되여 만신창이 되고있다.

얼마전 홍준표는 몰락하는 자기의 세력을 어떻게 하나 수습하여 지방자치제선거 후보추천권을 독차지해보려는 목적밑에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지 않다는 일부 나라들의 지적도 무시하였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유엔인권리사회 실무그루빠회의에서 각국은 일본의 심각한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217개의 항목에 달하는 권고들을 제출하였었다.

일본정부가 각국의 권고와 요구들을 거부한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고조될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총격사건 발생

얼마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공공건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지대중보도수단들은 검은 방탄복을 입고 자동무기를 휴대한 30대의 한 남성이 이곳에 침입하여 3명의 녀성직원을 인질로 붙잡았다고 보도하였다.

경찰무력이 사건현장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미 인질들과 총격범으로 보이는 남성의 시체들만 뒹굴고있는 상태였다.

범인의 신원과 범행목적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본사기자

로씨야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파탄되였다고 언명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볼로진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로씨야를 반대하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정책이 파탄되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로씨야가 모든 방면에서 《불편한》 경쟁자로 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은 자주 비렬한 방법을 써서라도 로씨야를 경쟁마당에서 몰아내려고 시도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로씨야에 《온순하고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을 들어앉히려고 책동하였으며 그 모든것은 국가로서의 로씨야를 붕괴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이를 위해 제재와 개별적인 상품들에 대한 관세부과조치, 아무런 근거도 안받침되지 않은 주요정치가들에 대한 비난 등 모든 수법들이 리용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과 서방의 현 제재정책은 《림종상태》를 방불케 한다, 명백한것은 제재정책이 파탄되였으며 그들도 이것을 알고있지만 굳이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다고 조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승자가 없는 무역전쟁

미행정부의 새로운 관세부과조치에 대한 반발이 끊기지 않고있다.

얼마전 미국회의 한 상원의원이 철강제 및 알루미니움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를 무효로 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리유는 관세부과조치가 실업을 증대시키고 경제장성을 억제시키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와 함세하여 헌법상감독을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세계무역기구 총국장은 관세부과조치로 일어나게 될 《도미노효과》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기자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호상보복조치를 취하는데로 나아가는 경우 당신들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겠지만 언제 어떻게 그 과정을 멈춰세울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있다.》

미집권자가 철강제와 알루미니움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부과조치를 취한 때로부터 나타나고있는 각국의 반응들로 미루어보아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무역전쟁은 각일각 현실로 되여가고있다.

지난 2일 미집권자는 트위터에 자국이 거의 모든 나라들과의 교역에서 수십억US$를 잃고있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은 좋은것이며 이기기 쉽다고 하였다.

하다면 실지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과연 미국이 그렇게 쉽게 이길수 있겠는가.

대다수의 경제학자들과 무역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하고있다. 무역전쟁에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것이다.

5가지 리유가 제시되였다.

관세부과조치가 일자리를 별로 많이 가져다줄수 없다는것, 미국내에서 비용을 증가시킬것이라는것, 동맹국들에 피해를 입히며 보복을 불러올수 있다는것, 다른 나라들에도 해당한 대응책이 있다는것,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는것이다.

배제할수 없는 론리들이다.

미국의 소규모기업체들이 제일먼저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 원자재의 값이 올라가면 상품의 값도 오른다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소규모기업련합회가 관세부과조치를 미국의 가정에 들씌우는 세금이라고 비난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째서 미집권세력이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관세부과조치를 굳이 고집하는가.

정치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현 미집권자는 재선을 노리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11월에 있게 될 국회중간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로 된다. 집권위기에 처한 현 상태에서 주요기업체들에 특혜를 베풀어 그들을 끌어당겨야 필요한 지지기반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미행정부의 타산이다.

또한 관세부과조치를 취해놓고 자기의 강권을 발동하여 무역분야의 적수들을 견제, 압박하자는데도 의도가 있다.

하지만 일은 뜻대로 흐르지 않고있다.

침체에 빠진 미국경제와 경쟁력없는 상품들을 내걸고 계획을 세운 결과 강한 반작용의 영향을 받고있다. 동맹국들도 들고일어나 미국을 압박하고있다.

전문가들은 관세부과조치로 인해 일어나게 될 무역전쟁의 편을 가른다면 미국 대 전세계로 되게 될것이라고 하고있다.

본사기자 손 소 연

우리의 국권, 인권을 유린해온 만고죄악

《보호》의 간판밑에 일으킨 춘생문사건

우리 나라의 국권을 유린해온 미제의 범죄력사에는 춘생문사건도 있다. 이 사건은 고종을 랍치하고 친미정부를 세우기 위해 1895년 미제가 조작한 왕궁습격사건이다.

당시 조선봉건정부의 집권자였던 고종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제의 친인공노할 만행을 체험하게 되였다. 그후 고종은 짜리로씨야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미제는 그것이 두려웠다. 그때 미국의 한 신문이 우리 나라가 짜리로씨야의 지배밑에 들어간다면 미국인들이 조선을 영원히 착취할수 없게 될것이라고 심각한 위구심을 표명한것만 놓고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미제는 반일친로방향으로 기울어진 고종의 행동을 억제해야만 앞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미제는 그 실행에 달라붙었다.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제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있던 고종에게 선교사부부가 만든 료리까지 섭겨올리면서 저들이야말로 생명의 《보호자》인듯이 자처해나섰다.

미제는 고종에게 친미사대주의사상을 불어넣는 한편 친미파들을 규합하였다. 그들을 사촉하여 고종을 들려세우고 친미정부를 조작함으로써 조선침략야망을 쉽게 이루어보려고 꾀하였다.

이를 위해 왕궁을 습격하려는 음흉한 모략을 꾸미였다. 이 음모의 총지휘는 조선주재 미국공사였던 알렌이 담당하였다. 그는 미해병대 약 100명과 시위대병사 800명을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절명하고 30여명의 자객들이 《별동대》로서 정부대신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경복궁 호위장 다이에게 왕궁내에서 밖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임무를 맡겨주었다.

언더우드1세를 비롯한 선교사들에게는 궁성안에 대기하고있다가 음모가 성사되면 고종을 미국공사관에 유인해올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다른 한편 알렌은 왕궁호위를 직접 담당하고있던 친위대 대대장에게 밀서를 보내여 시위대가 왕궁을 습격할 때 친위대는 안으로부터 호응하게 하였다.

면밀한 계획밑에 행동이 개시되였다. 습격은 춘생문방향에서부터 시작되였다.

그러나 경각성높은 친위대병사들과 민족적의분을 느낀 시위대병사들에 의하여 왕궁습격음모는 지지파탄되고말았다. 저들이 음모군들에게 속히워 반역행위에 내몰리우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시위대병사들은 행동을 포기하고 자진하여 돌아갔다. 일부 병사들은 친미분자들을 체포하기까지 하였다.

이날의 사건진상에 대하여 당시 외부대신이였던 김윤식은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어제 서촌(서양사람들의 마을)에 도망쳤던 사람이 친위대대장 리진호에게 밀서를 보내여 안으로부터 호응하게 하였다. 오늘 새영(신영)의 시위대병정 800명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친위병이 이를 환강하게 막아내고 소리치며 달려나가려고 할 때 성밖에 있던 병정들은 외각하였다. 5-6명의 관병과 접객 3명, 그밖의 5-6명의 신사들을 체포하였다. 그들은 모두 서촌사람(서양인)과 화응한자들이였다.》

미제의 왕궁습격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는 횡포한 국권유린행위였다.

춘생문사건은 미제야말로 침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 둘도 없는 흉악한 무리라는것을 온 세상에 폭로하였다.

본사기자 림 원

세계의 이모저모

이란 자국주재 영국대사에게 항의

최근 이란외무성이 런던주재 이란대사관이 공격을 받은것과 관련하여 자국주재 영국대사를 긴급호출하고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날 밤 공격자들이 이란대사관구내에 뛰여들어 건물의 로대에 기발을 찢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런던경찰은 이러한 불법침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란외무성 유럽국 국장도 자국대사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을 영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 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 거부

일본정부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리사회의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해나서는 불손한 행위를 하였다.

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의있는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아시아나라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특정비밀보호법 등으로 《보도의 자유》가 보장되고있지 않다는 일부 나라들의 지적도 무시하였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유엔인권리사회 실무그루빠회의에서 각국은 일본의 심각한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217개의 항목에 달하는 권고들을 제출하였었다.

일본정부가 각국의 권고와 요구들을 거부한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비난이 고조될것으로 예상된다.

련쇄적인 폭탄테로사건 발생

미국 텍사스주에서 련쇄적인 폭탄테로사건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

최근 이 나라 경찰이 밝힌데 의하면 주의 오스틴시에서 이달에 들어와서만도 4차례의 폭탄테로가 련발하여 2명이 죽고 여러명이 부상당하였다.

련이은 폭탄테로사건으로 공포의 분위기가 떠도는 가운데 20일 딴 안토니오시교외에 있는 한 시설에서 폭발물이 들어있는 꾸레미가 터져 한 로동자가 심하게 다쳤다.

테로사건의 남성혐의자가 다음날 새벽 고속도로옆에 서있던 승용차안에서 폭발장치를 터뜨려 자살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81048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독자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